

— 인천교육을 들여다보다 —

이슈Zoom인

‘이슈 줌인(Zoom In)’은 인천교육 현안을
집중 조망하는 소식지입니다.

이슈진단

- 아동·청소년의 긍정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서역량,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 학생성공시대를 맞이한 인천 직업계고의 운영 방향
- 시작해, 너의 가능성을 위로 : 고졸 채용, ‘스타트업’에서 길을 찾다
- 학생 성공의 밑거름, 교사의 성장과 성공

현장스케치

- 학생 성공 시대, 실천이 관건이다
- 교육과정 변화 및 고교학점제에 따른 진로 교육의 방향
-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 당신의 꿈을 실현하는 학교
- 굴러들어온 보물들, 다름이 아닌 특별한 아이들
- LAN-GU-Age의 Language 학습도 괜찮아!
- 결 따라 성장하는 은하수학교
- 누구보다 치열했지만 행복했던 나의 고등학교 시절
- 학생, 자신의 결을 찾다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2022

ISSUE ZOOM IN CONTENTS



발간사

- 05** '결'대로 성장하는 인천교육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이슈진단

- 06** 아동·청소년의 긍정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서역량,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현진
- 16** 학생성공시대를 맞이한 인천 직업계고의 운영 방향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 문영진
- 24** 시작해, 너의 가능성을 위로 : 고졸 채용, '스타트업'에서 길을 찾다
재단법인 교육의봄 연구팀장 전선희
- 30** 학생 성공의 밑거름, 교사의 성장과 성공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곽지순



현장스케치

- 36** 학생 성공 시대, 실천이 관건이다
인화여자고등학교 교장 최영선
- 46** 교육과정 변화 및 고교학점제에 따른 진로 교육의 방향
연수여자고등학교 교사 김성길
- 52**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 당신의 꿈을 실현하는 학교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교사 성미나
- 58** 굴러들어온 보물들, 다름이 아닌 특별한 아이들
인천한누리학교 교사 윤소영
- 66** LAN-GU-Age의 Language 학습도 괜찮아!
강화고등학교 교사 송민석
- 75** 결 따라 성장하는 은하수학교
청소년자치학교 은하수 교사 심은영
- 81** 누구보다 치열했지만 행복했던 나의 고등학교 시절
옥련여자고등학교 졸업생 김서진
- 86** 학생, 자신의 결을 찾다
학생참여위원회 부위원장 손석민

- 90** 인천교육정책연구소 연도별 연구과제목록(2015~2022)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발행일 2022년 11월 28일

홈페이지 <http://ice.na.to>

디자인·인쇄 신촌디자인인쇄(032.885.8188)

[이슈 **줌인**] 에 원고를 투고하시거나, 메일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은 교육정책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32-420-8213

✉ newlnj@ice.go.kr

※ 본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교육정책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결’대로 성장하는 인천교육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이슈 줌인(Zoom In)』의 가을·겨울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이슈 줌인(Zoom In)』은 학교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고,
인천교육의 현안을 다각도에서 집중 조명하는 소식지입니다.

이번 호의 주제는 「‘결’대로 성장하는 인천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결대로 교육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성공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학생성공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사회학자는 평균의 종말을 외치고 있습니다. 평균의 의미가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철학인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은 평균에 가까운 교육이 아닌, 35만 학생을 ‘여럿 중 하나’가 아닌, ‘오직 하나’로 존중하는 교육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 경로를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다양한 학교, 다양한 지원체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금까지 인천대중예술고, 바이오과학고, 소방고 등 직업계고 재구조화에 성공해왔습니다.
이어서 내년부터는 글로벌스타트업학교, 반도체고, 인천형 세계시민학교, 온라인고 등 다양한 학교를 만들고, 국제기구 연계 진로교육, 지역 연계 꿈이음 대학 등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다양한 빛깔의 배움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사이버진로교육원을 메타버스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학생미래수퍼비전센터 설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체제로 35만 학생의 35만 꿈이 모두 빛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슈 줌인』 발간을 축하드리며, 연구 자료와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함께 나눠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끝으로, 학교 현장과 다양한 교육 현장 곳곳에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실현 하고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아동·청소년의
긍정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서역량,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현진

●● 들어가는 말

아동·청소년들은 신체와 정신이 발달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경험이 필요하다. 나아가 자신의 목표를 성실하게 이루어 갈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계발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역량이 바로 사회정서역량이다. 사회정서역량은 인지역량의 발달과 학업성취는 물론, 학교 졸업 후 직업세계의 성공적 적응,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 사회통합과 시민참여 제고, 흡연·음주·범죄의 감소, 전반적 삶의 만족도 제고 등 우리 사회와 개인 삶과 관계된 다양한 문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Belfield et al., 2015; Graczyk et al., 2000; Taylor et al., 2017).

※이 연구는 “김현진 외(2020). OECD ESP 사회정서역량 조사 국제공동연구(IV): 본조사 결과 분석”의 일부 자료를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OECD(2005)는 DeSeCo 프로젝트 이후 줄곧 학생들의 역량, 특히 인지역량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2011년부터 최근 십여 년 간 끈기 있게 주도하고 있는 ‘교육과 사회진보 연구(ESP: 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해온 ‘사회정서역량(social and emotional skills)’에 대해 국제 사회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 오고 있다(김현진 외, 2020).

전술한 것과 같이 사회정서역량의 중요성과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된 바, 이 자료에서는 사회정서역량을 예측하는 환경 요인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는 사회정서역량 육성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탐색해 보기 위함이다.

●● 사회정서역량이란?

사회정서역량이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Schonert-Reichl et al., 2017). 사회정서역량은 인지적 역량과 비인지적 역량을 모두 아우르며, 개인적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요구되는 ‘21세기 역량’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Schonert-Reichl et al., 2017).

사회정서학습이론에서는 사회정서역량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으로 자기인식, 자기조절, 사회인식, 관계성, 책임 있는 의사결정 기술을 제시하였다(박우식, 2016: 34). ‘자기인식’은 자신의 흥미, 정서 동기 등을 인식하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역량, ‘자기관리’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사회적 단서로 인한 부정적 정서나 사고를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역량, ‘사회인식’은 자신과 다른 관점을 수용하고 공감하며 사회적 규범이나 윤리를 이해하는 역량, ‘관계기술’은 타인과 협력하고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개인과 집단 사이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역량,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은 개인과 사회적 이익의 간극에서 유익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해결 역량이다(도승이, 2015; 박우식, 2016).

OECD에서 제시한 사회정서역량은, 과제수행, 정서조절, 협력, 개방성, 타인관계, 추가요인이다(김현진 외, 2020). ‘과제수행’은 끈기, 자기통제, 책임감을, ‘정서조절’은 스트레스관리, 정서조절, 낙관주의를, ‘협력’은 협동, 신뢰, 공감을, ‘개방성’은 호기심, 관용, 창의성을, ‘타인관계’는 사회성, 자기주장, 활기를, ‘추가요인’은 성취동기, 자기효능감을 포함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SSES 사회정서역량 구성 요인



출처
SSES: About the study(OECD website) “What skills are to be included in the Study?”의 그림을 리터칭.
<https://www.oecd.org/fr/education/ceri/study-on-social-and-emotional-skills-the-study.htm>
(인출일자 2020.01.28.) 주. 김현진 외(2021:41)

이처럼 사회정서역량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세부 역량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공동체 생활에서 원만하게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성, 개방성, 협력과 신뢰, 조절 능력들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다.

● 사회정서역량 관련 국내·외 정책

일찍부터 사회정서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한 영국, 싱가포르, 미국 등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의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영국과 싱가포르 등은 주요 교육정책으로 사회정서역량에 주목하고 기존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여 이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은 사회정서 역량 정책과 함께 인권, 다문화 교육 등의 시민교육을 결합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김현진 외, 2020; 박우식, 2016). 싱가포르는 주도적이고 사회에 공헌하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정서역량에 주목하고 이를 21세기의 주요 역량으로 내세우고 있다.⁰¹ 이들의 정책은 사회정서역량을 중심으로, 정신 건강, 성교육, 디지털 시민성 등 다양한 정책과 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정서역량 관련 정책은 인성교육과 학교폭력예방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9472호, 2015.7.20.)에서는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교육”으로 정의한다(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제1항). 「인성교육진흥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개인의 성품과 역량’은 사회정서 역량의 주요 내용과 목적에 있어서 공통 요소를 포함한다. 나아가 학자들이 제시하는 인성의 요소는 도덕성, 사회성, 감성 혹은 정서이며, 세부 요인은 정직, 책임, 공감, 소통, 자기이해, 자기조절 등으로 사회정서역량에서 강조하는 핵심 역량을 포함하고 있다(표 1 참조). 나아가 사회정서역량은 학교폭력예방 역량과도 관련이 있다. 박효정, 이희현, 김현진(2014)은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교육부, 2012.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 존중, 감정조절 등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성장과 발달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 연계의 맞춤형 프로그램이다(박효정, 이희현, 김현진, 2014). 이처럼 사회정서역량 관련 정책들은 인성교육과 학교폭력예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들어와 있다.

01 싱가포르의 교육부 사이트(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Education in SG, 21st Century Competencies. <https://www.moe.gov.sg/education-in-sg/our-programmes/social-and-emotional-learning>

〈표 1〉 사회정서역량, 학교폭력예방역량, 인성의 핵심 역량의 관련성

사회정서역량		학교폭력예방역량		인성을 구성하는 핵심 역량의 요소						
김현진 외(2020)		박효정, 이희현, 김현진 (2014)		천세영 외 (2012)		정창우 외 (2014)		지은림 외 (2013)		현주 외 (2014)
개방 성	• 호기심 • 관용 • 창의성	학교 폭력 예방 역량	•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도 덕 성	• (정직)핵심가치 인식 • (책임)책임 있는 의사결정	도 덕 성	• 규칙의 도덕 (정직, 준법, 책임) • 관습의 도덕 (효, 공경)	도 덕 성	• 정직/정의 • 책임 • 윤리 (어른 공경)	• 지혜 • 책임 • 예의 • 성실 • 정의 • 시민성 • 정직/용기
과제 수행	• 끈기 • 자기통제 • 책임감									
타인 관계	• 사회성 • 자기주장 • 할기	사 회 성	• 공감 • 의사소통 • 갈등해결	사 회 성	• (공감)사회적 인식 • (소통)대인관계	사 회 성	• 배려/봉사 • 개방성과 소통 • 공감	사 회 성	• 배려/봉사 • 공감	• 배려/소통
협력	• 협동 • 신뢰 • 공감									
정서 조절	• 스트레스관리 • 정서통제 • 낙관주의	정 서	• 자기존중감 • 감정조절	감 성	• (긍정)자기인식 • (자율)자기관리	정 체 성	• 자기이해 • 자기존중 • 자기조절	감 성	• 긍정적 자기이해 • 자기조절	• 자기조절 • 자기존중

● 연령 증가에 따른 사회정서역량의 특성

이 자료에서 분석한 데이터는 OECD ESP 사회정서역량의 국제공동연구의 일부 결과에 대한 것으로, 연구에 참여한 대구 지역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만 10세 코호트(이하 10세 코호트) 3,008명과,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15세 코호트(이하 15세 코호트) 3,326명의 자료이다. 이 중 여학생은 3,175명, 남학생은 3,142명이다. 그 외, 응답하지 않거나 기타로 응답한 학생은 17명이 있었다. OECD에서 제안한 대구광역시 남녀학생의 모집단 비율을 반영한 가중치를 반영하여 살펴본 결과, 사회정서역량은 10세 코호트의 평균값이 15세 코호트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표 2 참조). 즉, 영역별로 10세 코호트가 15세 코호트에 비해 5개 영역에서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p<.001$). 이는 OECD의 국제비교연구의 자료에 제시된 결과와도 일치한다(OECD, 2021).

연령에 따른 사회정서역량의 감소는 다른 나라의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결과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OECD, 2021). 인간은 주변의 유의미한 타자와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객관화된 자아개념과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Wood & Bandura, 1989). 즉,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초등학교 시기에는 부모나 친척(조부모 등)들의 관계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또래관계나 교사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한 영향요소가 된다(Schunk, Meece, & Pintrich, 2012). 예컨대, 자아개념을 형성함에 있어서 자신(self)을 객관화하는 참조집단의 중요성이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또래집단이나 교사로 옮겨진다는 측면에서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Schunk, Meece, & Pintrich, 2012). 따라서 사회정서역량의 연령에 따른 감소는 ‘하락’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의 발달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표 2> 사회정서역량의 연령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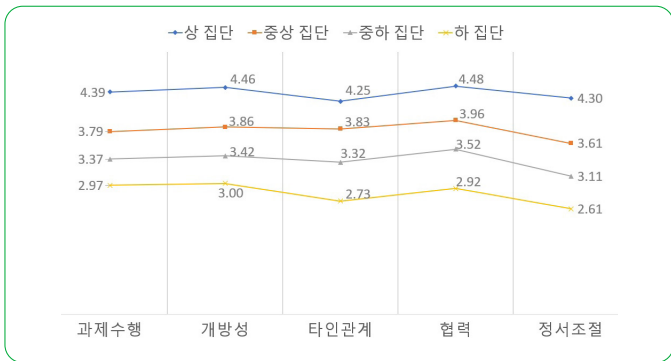
사회정서역량	코호트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과제수행	10세 코호트	19,230	3.71	0.57	21.41***
	15세 코호트	20,521	3.59	0.55	
개방성	10세 코호트	19,230	3.81	0.58	32.38***
	15세 코호트	20,521	3.62	0.55	
타인관계	10세 코호트	19,230	3.71	0.54	37.23***
	15세 코호트	20,521	3.50	0.56	
협력	10세 코호트	19,230	3.80	0.55	9.04***
	15세 코호트	20,521	3.75	0.52	
정서조절	10세 코호트	19,230	3.62	0.66	53.45***
	15세 코호트	20,521	3.27	0.63	

*** $p < .001$

●● 사회정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친구, 학교 관련 요인

사회정서역량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통해 4집단이 도출되었다(그림 2 참조).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영역별 공통적 특성이 있는 집단을 구별하는 데 용이한데, 김현진 외(2020)의 연구에서는 사회정서역량 5개 영역에서 전체적으로 높거나 낮은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사회정서역량 5개 영역이 높은 ‘상 집단’, ‘중상 집단’, ‘중하 집단’, ‘하 집단’으로 구분된 것이다(그림 2 참조).

[그림 2] 사회정서역량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에 따른 집단 구분 김현진 외(2020: 96)



이러한 집단 구분에 따라, 집단을 예측하는 가정, 친구, 학교의 주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4개 집단을 종속 변수로 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개 집단 중 사회정서역량의 하 집단을 준거 집단(하 집단 vs. 중하 집단, 하 집단 vs. 중상 집단, 하 집단 vs. 상 집단)으로 하여, 집단을 구분하는 예측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다음은 부모의 지원적 양육방식, 사회 쟁점에 대한 토론과 논쟁 수업, 학생의 다양한 활동과 참여 경험, 주변 사회적 자본과의 긍정적 관계, 협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학교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부모의 지원적 양육방식 |

이 자료에서 살펴본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자율성을 높이는 지원적 양육방식이다. 10세 코호트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방식 평균’이 1점 상승할 때 상 집단에 속할 승산이 3.831배($\text{Exp}(B)=3.831, p<.001$) 증가하고, ‘아버지의 양육방식 평균’ 또한 1점 상승할 때 상 집단에 속할 승산은 4.951배($\text{Exp}(B)=4.951, p<.001$) 증가하였다. 15세 코호트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 태도 평균’이 1점 상승할 때 상 집단에 속할 승산이 3.524배($\text{Exp}(B)=3.524, p<.0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양육 태도 평균’ 또한 1점 상승할 때 상 집단에 속할 승산은 2.567배($\text{Exp}(B)=2.567, p<.01$) 증가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자녀의 자율성을 높이는 부모의 지원적 양육방식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생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 사회정서 역량이 높은 집단에 속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동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3> 부모의 양육방식과 활동

양육 방식	10세 코호트			15세 코호트		
	하 vs. 중하	하 vs. 중상	하 vs. 상	하 vs. 중하	하 vs. 중상	하 vs. 상
	Exp(B)	Exp(B)	Exp(B)	Exp(B)	Exp(B)	Exp(B)
어머니 지원적 양육방식	1.169	2.023*	3.831***	1.585*	2.324***	3.524***
아버지 지원적 양육방식	1.624*	3.027***	4.951***	1.766**	2.020***	2.567**

*** $p < .001$, ** $p < .01$, * $p < .05$

사회적 쟁점에 대한 토론과 논쟁 수업 |

수업에서 학생들과 다양한 사회 관련 쟁점에 대해 토의하는 것이 사회정서역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10세 코호트의 경우,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 쟁점 토론이 1점 상승할 때 상 집단에 속할 승산이 1.946배($\text{Exp}(B)=1.946, p<.001$) 증가하고, ‘세계 각지에서의 남녀평등 문제’ 쟁점 토론 역시 1점 증가할 때 상 집단에 속할 승산이 2.514배($\text{Exp}(B)=2.514, p<.001$) 증가하였다. 15세 코호트의 경우,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 쟁점 토론이 1점 상승할 때 상 집단에 속할 승산이 2.608배($\text{Exp}(B)=2.608, p<.001$) 증가하고, ‘빈곤 발생원인’과 ‘국제 분쟁’ 쟁점 토론 또한 1점 상승할 때 상 집단에 속할 승산은 각각 1.971배($\text{Exp}(B)=1.971, p<.001$)와 1.848배($\text{Exp}(B)=1.848, p<.001$) 증가했다.

이 결과를 통해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 국제 보건, 남녀평등, 국제 분쟁, 빈곤 발생원인 등의 다양한 사회적 쟁점에 대한 토의와 논쟁의 수업이 초·중·고등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표 4> 수업을 통한 다양한 쟁점에 대한 논의

사회적 쟁점	10세 코호트			15세 코호트		
	하 vs. 중하	하 vs. 중상	하 vs. 상	하 vs. 중하	하 vs. 중상	하 vs. 상
	Exp(B)	Exp(B)	Exp(B)	Exp(B)	Exp(B)	Exp(B)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	1.030	1.403**	1.946***	1.035	1.451**	2.608***
국제 보건 문제 (예: 전염병)	1.044	1.346*	1.845***	1.168	1.388**	1.636**
국제 분쟁	1.148	1.290*	1.242	0.984	1.281*	1.848***
빈곤 발생원인	1.015	0.913	1.144	1.320*	1.645***	1.971***
세계 각지에서의 남녀평등 문제	1.232	1.540***	2.514***	0.942	0.940	1.081

*** $p < .001$, ** $p < .01$, * $p < .05$

다양한 활동과 참여 경험

스포츠, 예술, 봉사 활동 등 학교의 다양한 활동이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을 높이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10세 코호트는 ‘스포츠’ 활동이 1점 상승할 때 상 집단에 속할 승산이 2.515배($\text{Exp}(B)=2.515, p<.001$) 증가하고, ‘자연 보호 활동’ 역시 1점 상승할 때 상 집단에 속할 승산이 2.362배($\text{Exp}(B)=2.362, p<.05$) 증가하였다. 15세 코호트는 ‘봉사 활동’이 1점 상승할 때 상 집단에 속할 승산이 3.171배($\text{Exp}(B)=3.171, p<.001$) 증가하고, ‘스포츠’ 활동이 1점 상승 때 상 집단에 속할 승산이 3.354배($\text{Exp}(B)=3.354, p<.001$) 증가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시기에는 스포츠, 예술, 자연 보호 활동이,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스포츠와 봉사 활동 등이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발달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5〉 다양한 활동에 참여

다양한 학교 활동	10세 코호트			15세 코호트		
	하 vs. 중하	하 vs. 중상	하 vs. 상	하 vs. 중하	하 vs. 중상	하 vs. 상
	Exp(B)	Exp(B)	Exp(B)	Exp(B)	Exp(B)	Exp(B)
스포츠	1.247	1.698***	2.515***	1.398	2.321***	3.354***
예술	1.217	1.298	2.119***	1.126	0.919	1.207
사회 활동	1.351	1.334	1.598	0.840	0.955	1.197
봉사 활동	1.177	1.453	1.545	1.893**	2.960***	3.171***
자연 보호 활동	1.566	1.985*	2.362*	0.803	1.285	1.471

*** $p<.001$, ** $p<.01$, * $p<.05$

주변 사회적 자본과의 긍정적 관계

사회적 자본은 학생이 접하는 주변의 사회적 관계와 얼마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는지와 관련된다. 10세 코호트의 경우, 다양한 사회적 자본 중에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1점 상승할 때 상 집단에 속할 승산이 1.329배($\text{Exp}(B)=1.329, p<.05$) 증가했으며,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1점 상승할 때 상 집단에 속할 승산이 1.255배($\text{Exp}(B)=1.255, p<.01$) 증가하였다. ‘반 친구들과의 관계’가 1점 상승할 때에는 상 집단에 속할 승산이 2.042배($\text{Exp}(B)=2.042, p<.0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문화의 친구’가 1점 상승할 때 상 집단에 속할 승산이 3.477배($\text{Exp}(B)=3.477, p<.001$) 증가하였다. 반면, ‘또래 친구들의 문제행동’이 1점 상승할 때 상 집단에 속할 승산이 0.192배($\text{Exp}(B)=0.192, p<.001$)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하 집단에 속할 승산이 5.208배 증가함을 의미한다. 15세 코호트의 경우, ‘반 친구들과의 관계’가 1점 상승할 때 상 집단에 속할 승산이 2.570배($\text{Exp}(B)=2.570, p<.001$) 증가하였고,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과의 관계’가 1점 상승할 때 상 집단에 속할 승산이 1.495배($\text{Exp}(B)=1.495, p<.001$) 증가하였다. 또한 ‘다양한 문화의 친구’가 1점 상승할 때 상 집단에 속할 승산이 3.814배($\text{Exp}(B)=3.814, p<.0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래 친구들의 문제행동’이 1점 상승할 때 상 집단에 속할 승산이 0.343배($\text{Exp}(B)=0.343, p<.001$)로 나타나, 하 집단에 속할 승산이 2.915배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시기에는 아버지, 형제·자매의 친척 등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것, 친구들이나 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중·고등학생들은 형제·자매와의 관계, 친구, 반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과의 긍정적 관계도 사회정서역량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주변 또래 친구들의 문제행동들이 많이 발생할 경우 사회정서역량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또래문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다양한 문화의 또래 관계 형성이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통해 또래문화 조성에서 이질집단 형성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표 6〉 사회적 자본과의 긍정적 관계

사회적 자본	10세 코호트			15세 코호트		
	하 vs. 중하	하 vs. 중상	하 vs. 상	하 vs. 중하	하 vs. 중상	하 vs. 상
	Exp(B)	Exp(B)	Exp(B)	Exp(B)	Exp(B)	Exp(B)
어머니	0.963	0.963	1.332	1.151	1.163	1.314
아버지	1.173	1.367**	1.329*	1.036	1.139	1.182
형제와 자매	1.119	1.184**	1.255**	1.127*	1.239***	1.288**
친척(할머니와 할아버지, 이모/삼촌, 사촌 등)	1.013	1.143	1.415***	1.068	1.091	1.057
친구들	1.320**	1.477***	1.668***	1.379***	1.561***	1.711***
반 친구들	1.357**	1.693***	2.042***	1.464***	1.868***	2.570***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	0.864	0.910	1.021	1.097	1.330***	1.495***
이웃주민들	1.182*	1.346***	1.592***	1.106	1.175	1.402***
또래 친구들의 문제행동	0.606***	0.397***	0.192***	0.765***	0.544***	0.343***
다양한 문화의 친구	1.770***	2.203***	3.477***	1.256	2.222***	3.814***

*** $p<.001$, ** $p<.01$, * $p<.05$

협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학교문화 조성

학교문화는 학생들이 인식한 학생들 사이의 내재된 가치나 경험으로, 학교에서 학생 간 협동적 가치 혹은 경쟁적 가치를 느끼는지, 학생 간 서로 협동을 하는지 혹은 경쟁을 하는지 등이다. 10세 코호트의 경우, ‘학생들이 협동에 가치를 둔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1점 상승할 때 상 집단에 속할 승산이 3.260배($\text{Exp}(B)=3.260, p<.001$) 증가하고, ‘학생들이 서로 협동하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1점 상승할 때 상 집단에 속할 승산이 9.570배($\text{Exp}(B)=9.570, p<.001$) 증가하였다. 반면 ‘학생들이 서로 경쟁한다’라는 인식이 1점 상승할 때 상 집단에 속할 승산이 0.748배($\text{Exp}(B)=0.748, p<.05$)로, 하 집단에 속할 승산이 1.33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코호트의 경우, ‘학생들이 협동에 가치를 둔다’는 인식이 1점 상승할 때 상 집단에 속할 승산이 2.347배($\text{Exp}(B)=2.347, p<.001$) 증가하고, ‘학생들이 서로 협동한다’는 인식이 1점 상승할 때 상 집단에 속할 승산이 4.933배($\text{Exp}(B)=4.933, p<.001$) 증가하였다.

이처럼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협동의 가치를 강조하고 학생 간 협동이 활발하다고 인식할수록 사회정서역량이 높아질 확률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통해 협동적 학교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표 7〉 경쟁적 혹은 협동적 학교문화

학교문화	10세 코호트			15세 코호트		
	하 vs. 중하	하 vs. 중상	하 vs. 상	하 vs. 중하	하 vs. 중상	하 vs. 상
	Exp(B)	Exp(B)	Exp(B)	Exp(B)	Exp(B)	Exp(B)
학생 간 협동적 가치	1.403**	2.046***	3.260***	1.144	1.431***	2.347***
학생 간 서로 협동	1.849***	3.485***	9.570***	1.614***	2.509***	4.933***
학생 간 경쟁적 가치	1.005	1.046	1.004	1.040	1.112	0.943
학생 간 서로 경쟁	0.899	0.792	0.748*	0.870	0.934	1.118

*** $p<.001$, ** $p<.01$, * $p<.05$

글을 마치며

이 자료는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 교육으로의 변화,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향하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 자료를 통해 얻어진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건강한 사회관계망 구축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성장 지원

Furman과 Buhrmester(1985)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관계망을 통해 각 관계망마다 고유한 자원을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부모로부터는 애정, 자아존중감, 한결같은 지지 등을 구한다면, 교사로부터는 주로 자신의 목적 추구에 필요한 도움을, 또래로부터는 동료애나 친근감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발달에 필요한 심리적, 물질적 자원들이 각기 다른 사회관계망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자료의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학생들은 연령별로 다양한 사회관계망을 통해 심리사회적으로 성장해 가지만, 건전한 친구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 이들과 질적으로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론과 논쟁이 활발한 수업과정 활성화

이 자료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쟁점에 대한 토론이 사회정서역량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Pyszczynski 등 (2012)의 연구에서도 서로 다른 문화나 집단을 관통하는 인류 공동의 문제를 고민하고 토론할 때, 다른 집단이나 문화의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나 포용력과 같은 개방성이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어 수업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수업 설계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배려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 조성

사회정서역량이 높은 집단에 속한 학생일수록 학생 간에 협력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학교 구성원들 간의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는 학교문화를 경험한다. 따라서 학교구성원들은 학습자의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는 협력과 배려,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생태체계적 요소들의 유기적 작동을 위한 정책 지원

이 자료에서는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예측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그림 3]은 사회정서역량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의 함양을 위해서는 가정, 또래, 수업, 학교문화 등 개인을 둘러싼 생태체계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 3] 사회정서역량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소 김현진 외(2020:12)

OECD 등 선진국에서 사회정서역량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이 역량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기(self)를 조절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인성교육, 시민교육과 함께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사회정서역량의 증진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정서역량의 중요성과 교육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회정서역량과 관련하여 정책의 방향이 뚜렷하지는 않다. 앞서 사회정서역량과 인성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정책과의 관련성을 언급하였으나 사회정서역량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나 영국의 교육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인권, 환경·지속가능교육, 인성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성평등, 민주시민교육 등 다양한 교육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OECD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들이 사회정서역량을 미래역량으로 간주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교육정책들의 관련성과 추진 방법들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급별 맞춤형 통합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OECD는 미래역량으로써 사회정서역량과 관련한 국제비교연구를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활발한 만큼 우리도 사회정서역량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방법, 학교문화 조성, 청소년의 역량 강화 방안과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향하는 정책 방안, 이러한 정책의 동력이 되는 연구들이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교육부(2012.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 김현진, 김미숙, 이선영, 양희준, 김정아, 김민성, 김준엽, 조윤정(2020). OECD ESP 사회정서역량 조사 국제공동연구(IV): 본조사 결과 분석.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도승이(2015). 사회정서학습 측면에서 인성교육과 인성의 측정. 교육심리연구, 29(4), 719-735.
- 박우식(2016). 외국의 사회정서학습이 우리나라 인성교육 정책에 주는 시사점: 미국·영국·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연구, 31(1), 29-56.
- 박효정, 이희현, 김현진(2014). 학교폭력예방 표준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손경원(2016). 인성교육의 연구 동향과 과제. 윤리교육연구, 39, 97-133.
- 정창우, 손경원, 김남준, 신호재, 한혜민(2014). 학교 급별 인성 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 지은림, 도승이, 이윤선, 박소연, 주언희, 김해경(2013). 인성지수 개발 연구. 교육부.
- 천세영, 김왕준, 성기욱, 정일화, 김수아, 방인자(2012). 인성교육 비전 수립 및 실천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현주, 임소현, 한미영, 임현정, 손경원(2014). 초중등 학생 인성수준 조사 및 검사도구의 현장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Belfield, C., Bowden, A. B., Klapp, A., Levin, H., Shand, R., & Zander, S. (2015). The economic value of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Journal of Benefit-Cost Analysis, 6(3), 508-544.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 Psychology, 21(6), 1016-1024.
- Graczyk, P., Matjasko, J., Weissberg, R., Greenberg, M., Elias, M., & Zins, J. (2000). The role of the Collaborative to Advance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CASEL) in supporting the implementation of quality school-based prevention programs. Journal of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Consultation, 11(1), 3-6.
- OECD(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Paris: OECD.
- OECD(2021). Beyond academiv learing: First results from the survey of social and emotional skills. Paris: OECD Publishing.
- Pyszczynski, T., Motyl, M., Vail III, K. E., Hirschberger, G., Arndt, J., & Kesebir, P. (2012). Drawing attention to global climate change decreases support for war.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18(4), 354-368.
- Schonert-Reichl, K. A., Kitil, M. J., & Hanson-Peterson, J. (2017). To reach the students, teach the teachers: A national scan of teacher preparation and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 report prepared for the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CASEL). Vancouver, B.C.: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Schunk, D. H., Meece, J. R., & Pintrich, P. R. (2012). Motivation in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Pearson Higher Ed.
- Taylor, R. D., Oberle, E., Durlak, J. A., & Weissberg, R. P. (2017). Promoting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rough school-based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interventions: A meta-analysis of follow-up effects. Child development, 88(4), 1156-1171.
- Wood, R. & Bandura, A. (1989). Social cognitive theory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3), 361-384.

학생성공시대를 맞이한 인천 직업계고의 운영 방향

2021 인천 직업계고 운영에 관한 교육주체별 인식 결과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
문영진



※본고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서
2021년 수행한 기본연구과제06
‘인천광역시 직업계고등학교 특성 분석 및 운영 방향 탐색’의
기초조사 결과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함

인천시교육청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5대 교육정책을 내세웠다. 그중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은 학업성적만으로 평가받지 않고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찾는 맞춤형 진로·진학·직업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그간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혀있던 학력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생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는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개인의 삶의 여정을 그리는 데 있어 방향키의 역할을 하는 직업은 한 개인의 정체성을 대변하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며, 평생의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의 하나이다. 또한 개개인의 직업활동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직업교육은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지표를 찾게 해준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는 나라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모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중등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직업계고는 최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외부로는 취업난, 고졸취업자에 대한 열악한 일자리 환경, 고졸취업과 특성화고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의 이슈가 산재해있고, 이로 인해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짐에 따라 내부적으로도 신입생 모집에 몰두해야 하는 상황, 높은 기초학력 미달률과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이 큰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지속될 경우 직업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학생성공시대를 맞이하여 맞춤형 직업교육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 인천 직업계고의 내실있는 운영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의성에 비추어 인천 직업계고의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운영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인천 직업계고 운영에 관한 교육주체별 인식을 살펴보았다. 문영진 외(2021)에서는 인천 직업계고 운영 현황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본고에서는 그중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문항⁰¹을 추출하여 문항에 대한 교육주체별 인식을 재구성하였다. 문영진 외(2021)에서 실시한 조사 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 인천 직업계고 운영에 관한 교육주체 인식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기간	2021. 7. 14.(수)~23.(금) (10일간)
조사 대상	인천 직업계고 29개교 교사, 학생, 학부모
참여자 수	교사 274명, 학생 986명, 학부모 959명
최종 분석 사례 수	교사 237명, 학생 785명, 학부모 858명
조사 내용	교육목표, 교육과정, 학생의 교육적 성장, 교원 역량, 학교업무구조, 학교풍토, 학교환경 (7개 영역)
응답 방식	Likert 5점 척도(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매우 동의한다)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네이버폼)
자료 분석 방법	평균, 표준편차

01 전체 문항은 105개 문항이지만 영역별로 교육주체 간 인식 비교가 가능한 문항만을 추출함.

●● 교육목표 영역

교육목표 영역에서는 2가지 문항에 대한 교육주체별 인식을 살펴보았다. 2가지 문항 모두 교사의 평균 인식은 4점을 상회하는 반면, 학생과 학부모의 평균 인식은 3점대였다. 학생은 ‘우리 학교는 학교 여건, 학생의 교육적 필요, 학교구성원들의 공통가치를 고려하여 학교/학과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다’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고, 학부모는 ‘우리 학교구성원들은 학교교육목표에 대해 잘 알고 공감하고 있다’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표 2〉 교육목표 영역에 대한 교육주체별 인식			단위: 평균(표준편차)
문항 내용	교사	학생	학부모
우리 학교는 학교 여건, 학생의 교육적 필요, 학교구성원들의 공통가치를 고려하여 학교/학과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4.29(.777)	3.63(.924)	3.69(.837)
우리 학교구성원들은 학교교육목표에 대해 잘 알고 공감하고 있다.	4.27(.773)	3.67(.936)	3.60(.868)

●● 교육과정 영역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교사와 학생만 응답하였는데, 교육목표 영역과 마찬가지로 12개 문항 모두 교사의 평균 인식은 4점 이상으로 나타났고, 학생의 평균 인식은 3점대로 나타났다. 문항별 응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항 중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4.32, 3.78)’와 ‘우리 학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그 목적과 내용에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다(4.31, 3.91)’는 교사와 학생 모두 높은 값을 보였다.

반면에 교사 응답 중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진로와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과목들을 개설하고 있다’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다양한 교과 지식을 활용한 교과 융합형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의 평균값은 각각 4.03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학생 응답에서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개별 학생의 학습 수준, 특성, 요구에 따라 개별 맞춤형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3.53)’에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 문항은 교사와 학생 간 인식 값의 차이(0.61)가 가장 큰 문항이기도 하다. 한편, 학생 응답에서 ‘우리 학교는 학생의 심리/정서/행동의 긍정적 변화를 돕기 위한 인성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다’의 평균값이 3.64로 낮게 나타났다.

〈표 3〉 교육과정 영역에 대한 교육주체별 인식		단위: 평균(표준편차)
문항 내용	교사	학생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특성과 수준, 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4.22(.788)	3.75(.909)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진로와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과목들을 개설하고 있다.	4.03(.892)	3.70(.980)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학습자의 주도성(참여 및 활동 중심)을 중시하는 수업을 하고 있다.	4.19(.836)	3.73(.928)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개별 학생의 학습 수준, 특성, 요구에 따라 개별 맞춤형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4.14(.843)	3.53(.978)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다양한 교과지식을 활용한 교과 융합형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4.03(.873)	3.71(.906)

문항 내용	교사	학생
우리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그 목적과 내용에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4.12(.896)	3.67(.937)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4.32(.742)	3.78(.913)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개별 학생의 평가 결과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4.27(.754)	3.68(.960)
우리 학교는 학생의 심리/정서/행동의 긍정적 변화를 돕기 위한 인성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4.19(.865)	3.64(.967)
우리 학교는 학생 자치활동(학교규칙 제/개정, 교내 선거, 학교축제, 캠페인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4.22(.811)	3.77(.979)
우리 학교의 학생 자치활동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4.13(.932)	3.76(.916)
우리 학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그 목적과 내용에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4.31(.800)	3.91(.900)

●● 학생의 교육적 성장 영역

학생의 교육적 성장 영역에서도 교사의 평균값이 학생과 학부모보다 높게 나타났다. 먼저 교사 응답을 살펴보면,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 직업기초능력을 향상하고 있다(4.17)’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능력을 향상하고 있다(3.87)’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다음으로 학생 응답에서는 ‘나는 학교 교육을 통해 타인을 위한 배려와 양보, 나눔의식을 향상하고 있다(3.84)’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고, ‘나는 학교 교육을 통해 학교공부에 대한 흥미를 향상하고 있다(3.46)’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응답에서는 ‘우리 자녀는 학교 교육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향상하고 있다(3.85)’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우리 자녀는 학교 교육을 통해 운동능력을 향상하고 있다(3.37)’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표 4〉 학생의 교육적 성장 영역에 대한 교육주체별			단위: 평균(표준편차)
문항 내용	교사	학생	학부모
우리 학교 학생들은(나는/우리 자녀는) 학교 교육을 통해 인문, 사회, 과학기술적 소양을 함양하고 있다.	4.03(.831)	3.61(.918)	3.66(.853)
우리 학교 학생들은(나는/우리 자녀는) 학교 교육을 통해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능력을 향상하고 있다.	3.87(.948)	3.70(.910)	3.61(.938)
우리 학교 학생들은(나는/우리 자녀는) 학교 교육을 통해 직업기초능력을 향상하고 있다.	4.17(.832)	3.79(.906)	3.80(.875)
우리 학교 학생들은(나는/우리 자녀는) 학교 교육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향상하고 있다.	4.14(.819)	3.74(.958)	3.85(.849)
우리 학교 학생들은(나는/우리 자녀는) 학교 교육을 통해 학교공부에 대한 흥미를 향상하고 있다.	4.00(.897)	3.46(1.047)	3.64(.965)
우리 학교 학생들은(나는/우리 자녀는) 학교 교육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찾고 있다.	4.09(.863)	3.77(.945)	3.79(.917)
우리 학교 학생들은(나는/우리 자녀는) 학교 교육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학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꿈(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4.13(.831)	3.81(.889)	3.76(.916)
우리 학교 학생들은(나는/우리 자녀는) 학교 교육을 통해 타인을 위한 배려와 양보, 나눔의식을 향상하고 있다.	4.08(.806)	3.84(.871)	3.84(.803)
우리 학교 학생들은(나는/우리 자녀는) 학교 교육을 통해 학교, 친구, 지역사회 등에 대한 책임의식을 향상하고 있다.	4.04(.827)	3.82(.890)	3.76(.823)
우리 학교 학생들은(나는/우리 자녀는) 학교 교육을 통해 체력을 향상하고 있다.	4.02(.863)	3.59(.983)	3.48(.948)
우리 학교 학생들은(나는/우리 자녀는) 학교 교육을 통해 운동능력을 향상하고 있다.	3.99(.868)	3.54(1.022)	3.37(.978)

교원 역량 영역

교원 역량 영역도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인식 값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교원 역량 영역은 교사의 경우 자기보고식 형태이기에 평균값이 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먼저 교사의 경우 ‘나는(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가정형편, 성적 등에 상관없이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있다(4.55)’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 ‘우리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잘 이끌어낸다(4.22)’에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다음으로 학생은 ‘우리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은 학생들의 성장과 진로에 대해 관심이 많다(3.84)’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고, ‘나는(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교육활동이나 업무 수행 시 의견 차이로 학교구성원들(학생들, 학부모들)과 갈등이 발생할 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3.64)’에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학부모의 경우, 가장 높은 평균값(3.88)을 보인 문항은 교사와 같았고, 가장 낮은 평균값(3.69)을 보인 문항은 학생과 같았다.

〈표 5〉 교원 역량 영역에 대한 교육주체별 인식				단위: 평균(표준편차)
문항 내용	교사	학생	학부모	
나는(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키워야 할 역량, 학생들의 특성(학습 수준, 동기, 태도, 학습에서의 어려움 등), 수업 여건을 고려하여 수업을 할 수 있다.	4.33(.690)	3.68(.959)	-	
나는(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의 활동에 적절하고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4.34(.655)	3.73(.953)	-	
나는(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개별 학생의 특성(가정배경, 인성, 교우관계, 능력과 관심, 요구나 흥미, 어려움이나 걱정, 고민거리 등)을 잘 이해하여 지도할 수 있다.	4.35(.670)	3.69(.971)	-	
나는(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와 학생의 적성을 파악하여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진로 상담이나 프로그램/정보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다.	4.24(.736)	3.72(.962)	-	
나는(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 내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학생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4.26(.770)	3.68(.950)	-	
나는(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교육활동이나 업무 수행 시 의견 차이로 학교구성원들(학생들, 학부모들)과 갈등이 발생할 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4.27(.788)	3.64(.989)	3.69(.863)	
나는(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수업과 교육활동에 반영할 수 있다.	4.24(.750)	3.71(.905)	-	
나는(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가정형편, 성적 등에 상관없이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있다.	4.55(.633)	3.81(.977)	3.88(.823)	
우리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은 학교 발전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4.23(.887)	-	3.87(.843)	
우리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은 학생들의 성장과 진로에 대해 관심이 많다.	4.31(.865)	3.84(1.011)	-	
우리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잘 이끌어낸다.	4.22(.888)	-	3.79(.831)	

학교업무구조 영역

학교업무구조 영역의 3개 문항을 살펴보면, ‘우리 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방법(가정통신문, SNS 등)을 통해 주요 의사결정 내용을 충분히 공개하고 있다’의 문항에 대하여 교사(4.35)와 학부모(4.09)의 평균값은 모두 4점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학생은 3.83으로 다소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주체별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인 문항은 교사와 학생의 경우 ‘우리 학교는 주요 의사결정에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4.04, 3.68)’였고, 학부모는 ‘우리 학교는 의사결정에 있어 다양한 방법(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3.57)’였다.

〈표 6〉 학교업무구조 영역에 대한 교육주체별 인식				단위: 평균(표준편차)
문항 내용	교사	학생	학부모	
우리 학교는 의사결정에 있어 다양한 방법(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4.08(.949)	3.71(.946)	3.57(1.041)	
우리 학교는 주요 의사결정에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4.04(.978)	3.68(.984)	3.65(1.070)	
우리 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방법(가정통신문, SNS 등)을 통해 주요 의사결정 내용을 충분히 공개하고 있다.	4.35(.749)	3.83(.899)	4.09(1.072)	

학교풍토 영역

학교풍토 영역에서도 교육주체별 인식 차이가 두드러졌다. 먼저 교사는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역량에 만족한다(4.07)’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 ‘나는 우리 학교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관심 정도에 만족한다(3.53)’에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반면, 학생은 ‘나는 나에 대한 부모님의 교육적 관심 정도에 만족한다(3.93)’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이 나타났고, ‘나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 학교의 평판에 만족한다(3.62)’에서 가장 낮은 평균값이 나타났다. 학부모는 ‘나는 우리 학교에 자녀를 계속 보내고 싶다(3.91)’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 학생과 마찬가지로 ‘나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 학교의 평판에 만족한다(3.62)’에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표 7〉 학교풍토 영역에 대한 교육주체별 인식				단위: 평균(표준편차)
문항 내용	교사	학생	학부모	
우리 학교 학생들은 서로 친하게 지내며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4.06(.824)	3.85(.886)	-	
우리 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역량 함양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이다.	4.05(.898)	3.83(.909)	-	
나는 우리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 (나는 우리 학교에 계속 다니고 싶다.) (나는 우리 학교에 자녀를 계속 보내고 싶다.)	4.05(.953)	3.71(1.059)	3.91(.947)	
나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 학교의 평판에 만족한다.	3.73(1.066)	3.62(1.007)	3.62(.999)	
나는 우리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의 역량에 만족한다.	3.97(1.012)	-	3.80(.897)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역량에 만족한다.	4.07(.885)	3.75(.987)	3.85(.903)	
나는 우리 학교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나에 대한 부모님의) 교육적 관심 정도에 만족한다.	3.53(1.044)	3.93(.893)	-	

●● 학교환경 영역

학교환경 영역에서는 12개 문항에 대한 교육주체별 인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교사는 ‘우리 학교의 교내환경(운동장, 건물, 화단 등)은 잘 정돈되어 있다(4.28)’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고, 학생과 학부모는 ‘우리 학교 학부모들은(우리 부모님은/나는) 자녀의 학업, 진로, 학교생활에 대해 관심이 많다(3.96, 4.24)’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반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우리 학교 학부모들은(우리 부모님은/나는) 학교 운영(학부모회, 학교설명회, 학부모행사, 수업공개, 학교봉사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3.66, 3.25, 3.06)’에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표 8> 학교환경 영역에 대한 교육주체별 인식

단위: 평균(표준편차)

문항 내용	교사	학생	학부모
우리 학교 학부모들은(우리 부모님은/나는) 학교 운영(학부모회, 학교설명회, 학부모 행사, 수업공개, 학교봉사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66(1.015)	3.25(1.156)	3.06(1.110)
우리 학교 학부모들은(우리 부모님은/나는) 자녀의 학업, 진로, 학교생활에 대해 관심이 많다.	3.71(.959)	3.96(.880)	4.24(.755)
우리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학교교육활동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4.13(.815)	3.79(.919)	3.78(.875)
우리 학교는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4.19(.813)	3.82(.904)	3.80(.840)
우리 학교는 지역사회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3.97(.909)	3.74(.901)	3.72(.841)
우리 학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사 및 전문가들을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3.98(.945)	3.79(.903)	3.75(.868)
우리 학교는 지역 내 다른 학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3.92(.979)	3.58(1.002)	-
우리 학교의 시설은 학생들에게 안전하다.	4.22(.806)	3.83(.958)	3.83(.823)
우리 학교는 교실환경(냉난방, 책걸상, 사물함 등)이 쾌적하다.	4.16(.908)	3.77(.998)	3.76(.914)
우리 학교의 교내환경(운동장, 건물, 화단 등)은 잘 정돈되어 있다.	4.28(.802)	3.91(.942)	3.93(.793)
우리 학교는 다양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다.	4.23(.834)	3.87(.920)	3.88(.808)
우리 학교 주변 시설 및 환경은 학생들에게 안전하다.	4.13(.918)	3.78(.963)	3.72(.876)

이상으로 인천 직업계고 운영 현황에 대한 교육주체별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직업계고는 직업교육의 첫 분수령이자 중등직업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본다면, 중등직업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직업계고가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성공시대에 대비하여 개인별 맞춤형 직업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욱 내실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교육주체별 인식을 통해 현재 직업계고를 진단하고 운영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성공시대에 대비하여 인천 직업계고의 운영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에서 맞춤형 지도와 인성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 개별 맞춤형 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학생성공시대를 대비하여 맞춤형 진로·진학·직업교육을 지향하는 현재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문항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인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수준 역시 낮게 나타났는데, 최근 기업들의 인재 채용에서 학생의 인성을 더욱 중요시하는 추세를 보면 학생 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역시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학생들의 자기주도성과 흥미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학생의 교육적 성장 영역에서 학교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향상에 대하여 교사들의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개인별 맞춤형 직업교육에서 학생들이 꿈과 끼를 발현하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아 진로를 탐색하는 데에는 자기주도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강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생의 응답에서는 학업흥미 향상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교육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직업계고의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기초학력 및 학업흥미가 부족한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고 있다. 학업에 대한 흥미가 지속적으로 낮을 경우, 학생 개인 문제를 넘어서서 학교 전체의 학습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한편, 학부모 응답에서는 운동능력과 체력 향상에 대한 인식도가 낮았는데, 물론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으나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고려할 때 체력과 운동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반적인 학교 운영에 있어 학교구성원의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교육목표 영역과 학교업무구조 영역에서 학교구성원이 함께 하는 것과 관련된 문항들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응답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학과의 교육목표 설정과 공유에 교육주체가 함께 참여하며, 학교경영 전반에 있어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참여시키는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에 대해 교사들의 낮은 인식을 비롯하여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도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낮은 인식을 보면,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학교 평판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교육주체의 인식이 낮게 나타났는데, 특성화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으나 보다 대대적인 홍보와 안내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원 역량 영역에서 교사들의 갈등해결능력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학생 및 학부모와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갈등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심화되어 더 큰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관계에서의 부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갈등해결능력에 대한 연수나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제안한 과제들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계고의 내실있는 운영에 있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움직여야 함이다. 이러한 과제들이 현장에 잘 녹아드는 것은 학교와 교육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학부모 및 학생과 더불어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맞춤형 직업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학생성공 시대를 희망차게 열어가는 인천교육이 되기를 기대한다.

START

시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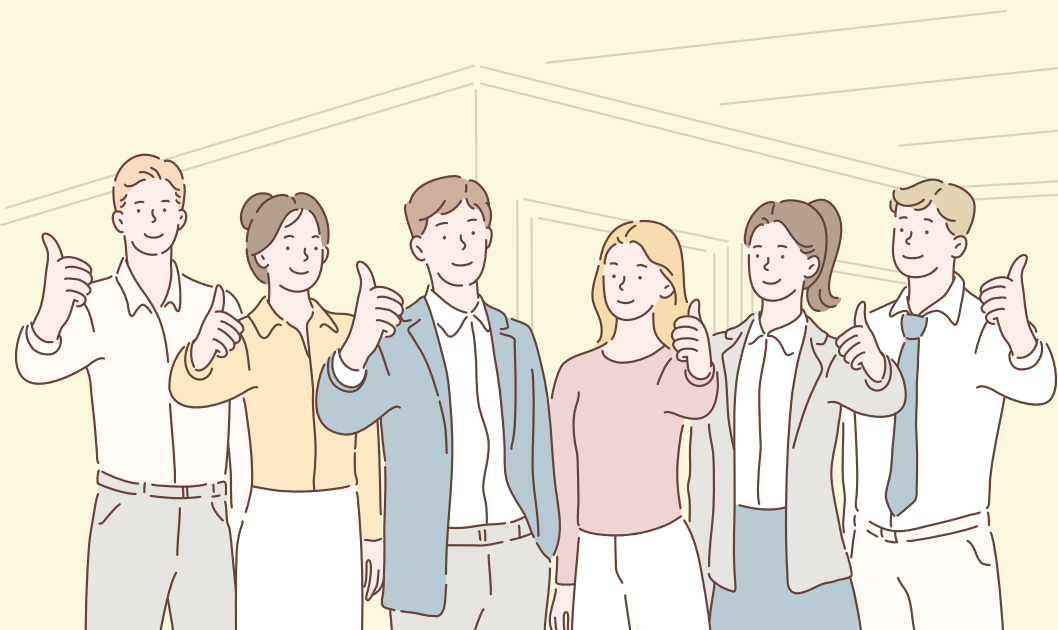
너의 가능성을

위로

UP

고졸 채용, '스타트업'에서 길을 찾다

재단법인 교육의봄 연구팀장
전선희



“...서류를 보니 유명 대학원 석사를 나온 분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뛰어났던 분이었고요. 다른 분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이었어요. 두 분이 코딩 테스트를 봤는데,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이 합격했습니다. 현재 3년이 되었는데 아주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계시요.”

- 스타트업 B사 인사총괄, 2022년 6월

이는 필자가 속한 기관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좋은 채용 기업 찾기 캠페인’에서 스타트업 B사의 HR 총괄의 인터뷰 중 일부이다. 여기에서 ‘좋은 채용’이란 학벌이나 불필요한 스펙에 의존하지 않고 직무역량 중심으로, 즉 실력 위주로 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펙과 학벌이 아닌 실무 역량 위주로 채용하다 보니 실력 있는 고졸 출신의 개발자가 선발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선불리 일반화시킬 수 없는 ‘신화의 영역’일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채용의 변화와 전망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히 신화가 아닌 ‘가능성의 영역’이 되어가는 듯하다.

이 글에서 필자는 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의 채용시장을 살펴보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학력·학벌과 상관없이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필자는 최근 채용문화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고졸 채용·취업의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졸 채용의 활성화와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한 한 가지 제안을 덧붙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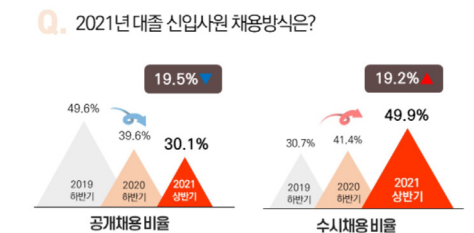
● 채용시장에 불어온 거대한 변화 : 학벌의 시대는 가고 실력 중심으로!

현재 한국의 채용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 변화의 핵심을 하나의 키워드로 설명하자면, 바로 ‘직무역량’이다. 현재 많이 회자 되는 채용의 여러 트렌드를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공채가 사라지고, 기업들이 빠르게 수시채용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림1]에서와 같이 수시채용 비율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다. 이제 국내 4대 기업(삼성, LG, 현대자동차, SK) 중 정기공채를 유지하는 기업은 삼성이 유일하다.

수시채용이 등장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뽑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직무 위주로 채용하겠다는 기업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림 1] 2021년 대기업 공채 및 수시채용 비율 (인크루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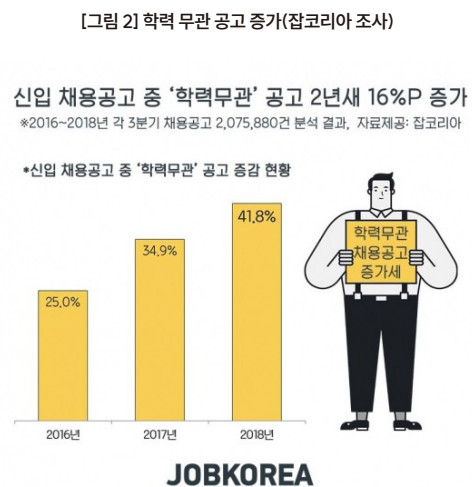
같은 맥락에서 경력직 채용이 늘어나는 현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력직’이라는 말 자체가 해당 직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경력직 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직무 경험이 없는 신입 채용의 경우는 기업이 직접 실무를 수행해 해보고, 그를 바탕으로 평가·채용하는 ‘인턴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역시도 직무의 경험을 강조하는 직무역량 중심 채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렇듯 직무역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업 채용이 빠르게 전환하면서 그와 동시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 있다. 그것은 과거와 달리 기업이 학벌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입사자의 학벌이나 스펙이 업무 성과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기업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기관이 올해 2월 진행한 심포지엄에서 학벌과 업무 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국내 유명 대기업의 R&D 연구직 792명을 대상으로 입사 시점의 출신학교, 학점, 영어 점수 등의 스펙과 입사 후 5년까지 성과를 비교 조사한 결과, 그 둘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경영학회·HR전문기업 마이다스인·충남대 박지성 교수가 함께 16개 기업, 6개 산업군에 재직 중인 4,04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학벌 스펙과 업무성과가 관련 없다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동아일보, 2022.8.29.).

●● 고졸 취업의 현실, 아직도 가야 할 길...

이렇듯 현재 기업들은 더 이상 학벌에 연연하지 않고,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찾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채용시장의 변화는 주로 학벌(출신 대학)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학력(최종 졸업 수준)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표면적으로는 고졸 출신에게도 채용시장은 열려 있다. 즉, 기업은 학력·학벌에 상관없이 실력이 있으면 선발하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 2019년 잡코리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에 등록된 채용 공고 총 2,075,880건의 학력 조건을 비교하여 발표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신입 채용 공고에서 학력 무관 공고 비율은 2년 사이 16%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벌뿐 아니라 학력과 무관하게 인재를 채용하려는 움직임은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 가는 듯하다.



하지만, 고졸 채용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김종진 외 6인(2020)의 ‘코로나19와 청년노동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특성화고 학생들의 연도별 취업자는 2009년 16.7%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50.6%를 찍고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2018년 43.6%, 2019년 34%, 2020년 27.7%로 급감했다. 여기에는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지만, 사실 그전부터 이미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고용 한파가 찾아왔을 때, 더욱 타격을 받은 부류도 고졸 출신 취업 준비생들이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고졸 출신 취업자는 18만 명 감소한 반면, 4년제 대졸자는 9만 1,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조선일보, 2021.1.18.).

고졸자 취업률의 감소는 특성화고 입학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특성화고 정원은 2011년 119,225명에서 2021년에는 69,663명으로 41.6% 감소했다.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매년 입학정원을 줄였음에도, 특성화고 충원율은 2011년 98.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0년에는 91.1%로 떨어졌다(아래 [그림3] 참고). 2021년에는 처음으로 90% 아래로(89.4%) 떨어졌고, 서울지역으로만 한정하면 특성화고 10곳 중 7곳은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21.3.21.). 이러한 특성화고 입학 감소는 한편 고졸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며,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특성화고 학생들 스스로의 부정적 인식과 그로 인한 자신감 결여 등의 문제도 연쇄적으로 발생해 더욱 특성화고 입학을 꺼리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그림 3] 특성화고 충원율 변화 (2011~2020)

(단위: 개,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학교 수	476	475	470	475	473	472	466	464	463	464
입학정원 미달교	134	137	95	98	142	139	170	229	231	-
입학정원	119,225	113,331	107,400	105,605	101,102	98,716	91,582	85,050	81,197	76,338
입학자	117,468	111,371	107,317	104,086	99,203	97,312	88,228	77,534	74,732	69,528
충원율	98.5	98.3	99.9	98.6	98.1	98.6	96.3	91.2	92.0	91.1

이미지 출처: 김종우 외3인,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 혁신역량 진단 및 개선 방향」.

특성화고 혹은 직업계고와 관련하여 더 큰 문제는 그들의 취업의 질이 낮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공개한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고졸 이하는 주로 판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2020년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에 따르면 대졸자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100인~299인 고용 규모의 사업체에서 고졸 이하 노동자의 임금은 59.21%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한국대학신문, 2021.6.11.). 이처럼 “고졸 = 질 낮은 일자리”라는 등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하고 있는 한 고졸자의 취업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취업률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 부정적 인식은 쉽게 깨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는 다시 특성화고 입학률 저하와 같은 여러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고졸 취업, 우리가 스타트업에 주목하는 이유

고졸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필자는 스타트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먼저 스타트업은 규모 면에서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속하지만,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필자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급성장하는 신생기업’으로 정의한다. 스타트업은 지속적인 투자를 받기 위해 빠른 성장이 요구되며, 그 성장의 핵심 동력은 바로 인재, 직원들이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인재 확보에 매우 적극적이며,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힘쓰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는, 스타트업은 기존 채용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실무능력 위주로 선발하는 채용 문법이 어느 정도 확고히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국내 채용이 전반적으로 직무역량 위주로 가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어디까지나 과도기이며, 여전히 많은 기업은 직무역량과 더불어 학벌 스펙도 참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느냐’를 채용에서 가장 중시하며, 따라서 실력이 있다면 학력·학벌은 중요하지 않다. 예컨대, 스타트업 IT 업계에서 고연봉의 고졸 개발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학교 간판이나 학력 수준을 따지지 않는 실무 역량 평가가 투명하게 가능하기 때문이다(신동아, 2021.5.11.).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벤처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재직하는 고졸자는 2015년 4.8%에서 2020년에는 10.4%로 최근 5년 사이 5% 이상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 2021).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의 현재 성장세를 볼 때, 학력·학벌에 의존하지 않는 채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20년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1~9위는 모두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기업이었다. 이러한 스타트업의 성장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1980년 이후 기존 기업의 일자리는 연평균 130만 개 감소했지만, 스타트업 창업기업은 연평균 28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국내 스타트업 역시 눈부신 성장을 하며 일자리를 늘려가고 있다. 예컨대,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2022)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스타트업 고용은 1년 사이 6만 8천여 명이 늘어났고, 이는 전체 기업 고용 증가율(3.3%)보다 약 3배 높은 수치(9.7%)였다.

정리해보면, 스타트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앞으로 학력·학벌에 의존하지 않는 스타트업의 일자리는 더욱 증가할 예정이다. 더 많은 고졸자들이 충분한 역량을 쌓고 도전한다면, 도입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고졸 개발자의 사례는 ‘신화의 영역’이 아닌 ‘가능성과 도전의 영역’으로 다가올 것이다.

●● 고졸 채용 인식변화를 위한 하나의 연구 제안

앞서 언급했듯 국내 기업 채용이 학벌 스펙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그 무게 중심이 이동한 데에는 학벌과 일 잘하는 능력(업무성과)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기업이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이 학력 수준으로까지 확대·확산된다면 고졸 취준생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학력 수준과 업무성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실증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학력과 업무성과 연구를 위해서는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학력 수준과 업무성과를 비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할 때, 특히 민간기업의 표본을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민간기업은 내부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동일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학력과 성과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필자의 기관에서 공기업 N사의 인사책임자와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인터뷰 중 고졸자의 업무 성취에 대해 매우 인상적인 발언이 있어 여기에 옮겨본다.

“저희 기관에 학사와 석사 출신은 많은 편인데 고졸자들하고 (성취도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고졸자들이 굉장히 성취를 많이 하고 승진도 많이 하고...고졸로 들어와서 학사가 되고, 다시 석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공기업들이 많겠지만, 저희도 특별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현재 두 분의 상임 임원이 계신데 그 중 한 분은 고졸로 입사하셔서 승진하신 분입니다.”

- 공기업 N사 인사책임자, 2022년 9월

【참고자료】

- 김영수 외 3인(2016), 『2016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중소기업청·(사)벤처기업협회.
- 김중우 외 3인(2021),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혁신역량 진단 및 개선방안』, 직업능력연구원.
- 김종진 외 6인(2020), 『코로나19와 청년노동 실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동아일보, 학벌·스펙, 성과와 무관하다는 뭘 보고 뿔나...생물학·신경과학에 답 있다 (2022.8.29.).
- 신동아, 고졸 vs 명문대생, 계급장 떼고 맞짱 뜨는 프로그래머의 세계 (2021.5.11.).
- 유정희 외 2인(2021), 『2021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사)벤처기업협회.
- 조선일보, 대졸취업 9만명 늘 때, 고졸 18만명 줄어...공기업 절반 '고졸채용 0' (2021.1.18.).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혁신 벤처·스타트업, 지난 1년 새 6만 8천여 명 고용 늘려 (2022.8.9.).
- 한국대학신문, '고졸'로 첫 취업...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2021.6.1.).



학생 성공의 밑거름, 교사의 성장과 성공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곽지순

● 지금, 학교는?

디지털 AI, 생명공학, 인구급감, 기후생태 위기, 갈등과 혐오 등 예측 불가능한 미래사회를 가리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한다. 이에 따라 교육의 방향도 학생들이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배움 과정을 통해 필요한 역량을 갖추며 책임 있는 실천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도 ‘학생성공시대를 열어가는 인천교육’을 비전으로, 모든 학생들이 결대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집중적 교육회복을 시작으로 기초, 기본역량 교육 강화, 디지털 AI교육, 기후생태교육, 사회정서학습, 평화 인권교육 등 학생들이 학교뿐 아니라 확장된 교육 생태계를 통해 배움을 이어나가며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교육청의 각 부서들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들이 학교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과 함께 교사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활발히 지원한다. 이는 모든 교육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열쇠가 결국 학교와 교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학교는 해야 할 일도, 가르쳐야 할 내용도 계속 확대된다. 그리고 교사들은 이에 뒤처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그럼에도 학교는 여전히 사회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교사는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되어 비난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 학생 성공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

학생들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배움과 경험은 대부분 학교를 통해 처음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생활의 대부분은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모든 교육적 변화의 시작은 결국 교실 속 수업의 변화로부터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더 행복한 배움을 위해 수업을 변화시키고자 배움의 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을 통해 함께 수업을 나누며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는 그동안 쌓아온 학교 문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다양한 원격수업, 메타버스 등 미디어 활용 능력이 중요해지면서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이 나누어주던 소중한 교육 경험은 갈 곳을 잃었다. 방역과 안전이 중심이 되면서 학생들에게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주었던 관계중심의 따뜻한 교육활동들은 위축되었고, 선생님들에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던 교육 수다를 통한 나눔과 교류가 소실되었다. 수많은 교육회복을 위해 쏟아지는 정책들과 예산 지원 속에서 학교는 더 바빠졌고, 교사들은 코로나19 이후 다시 예전처럼 교실 안에 갇힌 채 홀로 소진되어가고 있다. 그것도 더 많은 복지와 교육적 지원을 마치 학교의 빚처럼 당당히 요구하는 일부 학부모들과 점점 더 늘어나는 금쪽이들 속에서 말이다.

소진되어가는 교사들에게 교육의 변화는 허공에 외치는 되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와 같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교육이 변화하려면 학교가 변해야 하고, 학교가 변하려면 교사가 변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교사를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열린교육, 혁신학교, 배움의 공동체 등 한때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교육정책의 큰 전환과 학교의 변화에는 선생님들의 적극적 공감과 참여, 연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수업의 변화와 선생님들의 성장이 있었다.

결국 학생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은 결국 수업의 변화, 선생님들의 성장과 성공에 있다.

교사들의 동반 성장, 수업 나눔의 날을 시작하다

올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는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초등 교사들이 함께 모여 매일 먹는 집밥같이 소소한 수업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초등 수업 나눔의 날’을 운영했다. 경력 5년부터 30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력을 가진 교사 중 수업 나눔을 희망하는 교사들이 모여 매달 자신이 운영하는 일상적 수업들을 학년별, 주제별로 15~30분씩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코로나19 이후 교사들에게 수업 연수는 에듀테크 활용수업, 메타버스, 동아시아시민교육, 생태환경교육 등과 같이 낯선 것을 배워야만 하는 의무적 연수들로 이루어졌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업은 마치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져서 경력있는 선생님들조차 선불리 수업 나눔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던 것 같았다. 교실에서 기초, 기본학력을 기르는 수업, 독서, 글쓰기 연계 수업, 질문이 살아있는 수업, 토론 수업, 관계 중심의 생활교육, 인성중심 수업 등이 학생들에게 여전히 필요한데 말이다. 이런 수업을 중시하는 선생님들은 자신감을 잃고 자리를 잃은 채 이런 내용으로 수업 나눔을 해도 되는지부터 확인하려 했다.

모든 주제와 내용을 열고, 나의 도전과 실패, 성공으로 이어지는 작은 집밥 같은 일상적 수업 나눔을 주제로 소소하게 열었던 수업 나눔 속에서 선생님들은 함께 공감과 변화를 말하기 시작했다.

“나를 알고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음에 행복을 느끼고 갑니다.”

“오랜만에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면서 지금 내 수업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었을텐데... 반 아이들에게 미안하네요. 나누어주신 수업 자료를 참고해서 더 좋은 수업을 하도록 노력할게요.”

“동학년의 다양한 수업 사례, 프로젝트 운영 사례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적용하고 싶은 자료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실있는 수업 운영을 위해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반성을 하였습니다. 나누어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즐겁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경험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나누어 주신 고민들이 저도 고민했던 내용이라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배움을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의 즐거워할 얼굴들이 기대됩니다.”

수업 나눔의 날을 통해 함께 나눈 다섯 번의 수업 나눔에는 메타버스, 디지털 AI 활용 수업,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수업을 비롯하여 동아시아시민교육, 생태환경 수업, 인성중심 수업, 인권 수업, 학습자 주도성 함양을 위한 수업, 학생 자치와 연계한 수업 등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정책들이 녹아든 수업들이 다 들어있었다. 정말 잘 된 수업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늘 겪는 선생님들의 소소하게 실천한 작은 수업 성공 사례와 자료 나눔들이 선생님들의 공감과 성찰, 수업 변화로 이어지는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수업 사례 공모전, 모든 교사들의 성장 그리고 성공 이야기

- ☑ 교사의 성공이란 무엇일까?
- ☑ 성공한 교사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 ☑ 승진하지 않는 교사는 성공하지 못한 것인가?
- ☑ 경력이 많은 교사는 성장할 수 없는가?
- ☑ 모든 교사들이 성장했다고, 성공했다고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

모든 선생님들은 매일 수업과 생활지도를 한다. 그리고 그 수업과 생활지도가 잘 되어 학생들이 변하거나 성장한 모습을 보면 성취감을 느낀다. 물론 언제나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한 수업을 우리 교실에 적용해 보면 실패할 때가 더 많다. 그러나 나의 실패는 옆 반 선생님의 실패이자 어려움이기도 했고, 또다른 선생님의 성공 이야기였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동안 교육 수다와 나눔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나누며 실패를 도전과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바꾸는 성장 경험들을 가져왔다.

이러한 실패와 도전, 성장과 성공 경험은 여러 지원단 선생님뿐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가져본 경험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경험들은 지금 당장 몸과 마음이 모두 소진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께 공감과 위로가 되고, 다시 도전으로 이어지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이것이 제1회 초등 수업 사례 공모전을 시작한 이유다.

- ☑ 나의 수업 성장 이야기 - 도전과 실패를 지나다!
- ☑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수업 이야기 - 학년, 학교, 전학공 이야기
- ☑ 학생 성장을 지원한 고군분투기 -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제1회 초등 수업 사례 공모전은 다양한 선생님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모아보고자 나, 우리, 학생에 초점을 둔 세 가지 주제로 공모를 했다. 그러자 강화에 발령난 2년차 신규 선생님, 운동장에서 체육 전담만 계속하게 된

젊은 선생님, 나만의 교육철학으로 아이들과 글로 교류하며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 선생님, 끊임없이 도전하며 아이들을 성장으로 이끌고 있는 선생님,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를 시작하며 선생님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이야기 등 다양한 사례들이 모였다.

다음은 학생 성장을 지원한 고군분투기 공모 분야 최우수를 받은 교육경력 6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인천용학초등학교 원나연 선생님의 '단 한 명을 위한 한글 전문가'에서 발췌한 내용 중 일부이다.



[어떤 노력에도 결국 원점이었다.]

방과후 한글 튜트반을 처음 계획했던 것은 온전히 준이의 한글 해득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신청하면서 한글 튜트반의 정체성은 이리저리 흔들렸고, 나름 준이의 학습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했으나 준이의 한글 학습은 제자리걸음이었다. ㄱ, ㄴ, ㄷ을 채 떼지 못한다. ㄱ을 10분 정도 읽고 쓰고 그려보고 자석 카드로 놀이도 해보고 유도로 만들어보고 해도, 다시 ㄱ을 놓고 뭐였지?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못한다. 어떤 활동을 하던 옆에 있는 친구를 따라 할 뿐이었다. 준이에게 한글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교실에서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졌다. 한글을 모르니 타교과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친구 관계에서 자꾸만 다툼이 생겼고, 놀이나 협력학습시 준이를 끼지 않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타교과 수업 때도 혼자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글을 읽을 수 없었으니. 신기하게도 수학시간에 문제를 풀라고 하면 곧잘 해결하곤 했다. 다만 학습지를 풀거나 익힘책을 풀 때, 문제를 옆에서 하나하나 읽어줘야 했다. 너무 이상했다. 지적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그냥 한글만 해득이 안되는 것이었다. 처음 만나보는 유형의 학생이어서 이때까지도 그저 어떤 지적장애나 발달장애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할 뿐이었다.

- 종락 -

[드디어 찾았다!]

준이는 학습 장애가 있는 게 맞았다. 다만 정확한 진단이 필요했고, 나는 학습 장애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연수를 들으면 들을수록 준이는 난독증과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다른 부분에 대한 이해나 활동을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데 유독 한글 해득이 안되는 경우 난독증을 의심해 봐야 했다. 난독증이 맞다면 여태 준이에게 해왔던 한글 학습 지도 방법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연수를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께 상담을 받고, 교육청 차원에서 난독증 진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미 특수반 입반 관련 검사를 한차례 끝낸 후였기에 학부모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다. 그래도 더 이상의 시간 낭비는 있어선 안됐다. 어머님께 준이에 대한 담임교사의 진단을 알려드리고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난독증 진단에 참여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여름방학 내내 준이와 시간을 보내보니 한글이 전혀 학습이 되지 않는다는 걸 몸소 느끼셨다고 하셨다. 그래서 다행히 큰 거부감 없이 담임교사의 말을 따라주셨다.



- 종락 -

[그 이후]

지금도 종종 준이 생각이 난다. 이 경험 이후로 나는 한글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난독증 진단과 관련된 연수를 계속 들어 지금은 난독 진단 위원이 되어 다른 학교에 도움을 주러 다니기도 한다. 매년 학급 내에서도,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한글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 준이는 나를 성장시켰고, 준이 스스로도 놀랍게 성장했다. 다른 학교로 전근을 오고 이제는 준이의 소식을 더 들을 수 없지만, 분명 더 밝은 미소로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느 학년이나 아이들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교사는 자라가겠지만 1학년 담임 경험을 통해 교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세워나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어쩌면 교사라는 직업이 나와 맞지 않는 건 아닐까,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등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한가득이었을 때, 준이와의 성장통은 나에게 그 해답을 주었다. 함께함으로써 분명 또 함께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 용학초 원나연, '단 한 명을 위한 한글 전문가' 중에서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포용 교육, 학생 성공시대를 위한 첫걸음 기초, 기본교육 강화, 난독, 경제성 지능 등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 같은 멋진 교육정책 지원보다 6년차 선생님의 잔잔한 교육 경험에 대한 고백이 더 많은 교사들에게 울림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학생 성공시대, 교사들의 성장과 성공이 필요한 이유

코로나19 이후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도 여전히 교실 속에서 단절된 채 각자도생하며 공감할 겨를도 없는 강제된 변화 속에서 소진되어가고 있다. 교사들이 다시 희망을 노래하며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교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작은 성장과 성공에 대한 공감과 인정이 필요하다.

불확실한 미래, 그 미래를 주도적으로 대응해 가는 학생들의 주도성. 지금 우리는 학습자 주체성(Student Agency)이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미래, 교육이 만들어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수많은 교육정책들을 제시하고는 한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미래 교육으로 가는 변화의 중심에는 학교, 그리고 교사가 있다는 점이다. 교사를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로 세울 때 비로소 교실의 변화, 학교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학생 성공시대를 여는 열쇠는 교육 변화를 위한 교사 주체성(Teacher Agency)을 발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학생 성공 시대 실천이 관건이다

인화여자고등학교 교장
최영선

얼마 전, 일본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만든 타코야끼를 갖고 왔다. “교장 선생님, 애들이 그러는데요, 학교에 입학하고 오늘이 제일 행복했대요.” 4년 전, 순회 교사를 주고받으며 근근이 수업이 운영되던 때를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 위기(危機)와 반전(反轉)

인화여고를 소개할 때면 이런 타이틀이 따라붙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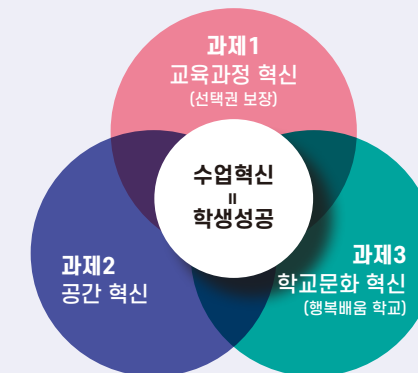
- ☑ (전국 최초) 선진형 고교학점제 운영교(2010 ~)
-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2020 ~ 2022년)
- ☑ 학교 단위 공간혁신 사업교(2020 ~ 2022년) * 2021년 학교숲 조성 시범실천학교 연계
- ☑ 동아시아 시민학교(2021 ~ 2022년) * 인천형 동아시아 교과특성화 학교 연계
- ☑ 행복배움학교(2019 ~ 2022년)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다. 굵직한 타이틀 면면에 일견 ‘혁’할 수 있다. 학교가 사업만 하나? 학급 수 감축(24학급 → 22학급)으로 교사가 4명이나 줄어든 마당에 어찌 감당하려고? 멀리서 보면 맞는 얘기다. 그런데 가까이 살펴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 역설이 있다.

우리 학교는 이 사업들을 오랫동안 앓고 있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바라보았다. 정책을 기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교육으로 轉化하여 좀 더 안전하고 나아진 여건에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一即多 多即一’의 심오한 화엄 철학까지는 아니더라도 ‘겉보기는 여러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교육 체계’로 운영하려 했다. 담당 부서(담당자)는 맡은 업무를 홀로 독박(?) 쓰듯 하지 않고 구성원들을 직간접 연결하는 주관자 역할을 했다. 덕분에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1년, 2년이 지나면 해당 영역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⁰¹

[다른 업무, 같은 과제의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개념]



01 제8회 인천혁신교육한마당(2022.11.5.) 행사에서 세션 2개(학교자치, 학교공간혁신)를 우리 학교에서 관련 업무를 맡은 교사와 전문직이 주관함

학교가 안고 있던 문제는 3개로 요약된다.

☑ **첫째, 시설 환경의 불균형.** 세대를 달리하는 두 건물, 1960 ~ 1980년대에 걸쳐 증개축을 거듭한 老朽 별관과 2009년 新築 본관의 불균형이 심각했다. 2010년부터 교과교실제를 시작으로 1교사 1교실, 이동수업 등을 운영했으나 학생들은 긴 동선과 별관의 누추한 환경 때문에 “감옥 같다”는 불만을 거듭 제기했다. 또한 건물과 각 실에 깔린 망(網), 선(線), 관(管)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정작 “교실은 많은데 교실이 부족”했다.

☑ **둘째, 교육과정과 교사 수급의 문제.** 교육과정이 시도 때도 없이 개정된 탓도 있겠지만, 편성된 교과목이 교사 수급과 엇갈렸다. 교과목에 따른 교사 과부족, 과목 간 시수차 문제가 해소되지 못했고, 예체능 및 생활·교양 교과는 늘 불안정했다. 불균형과 불안정은 교원 불만족 요인이 되어 뭔가 새로운 변화를 제안했을 때 외면되는 경우가 많았다. 시도가 없으면 학교는 조용하다. 그만큼 교원의 불편함은 연장되고 학생의 선택 기회도 제한된다.

☑ **셋째, 소통 부족의 문제.** 조용하다는 건 서로 말이 없다는 뜻도 된다. 교육에 앞서 열악한 교무실 환경, 취약한 특수학급 안전, 반복되는 운동부 사안, 인근 주민의 상시 민원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한데도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럽다. 학생들도 자치활동을 위한 격려와 지원을 부담스러워한다. 성공 경험이 없으니 말을 꺼내지 못하고, 말을 하지 않으니 성공 경험을 갖지 못한다.



● 기회(機會): 공간혁신에서 고교학점제로

1. 2019년, 두 개의 기회

원인을 알면 해법이 있게 마련이다. 시설 환경, 교육과정, 소통의 막막한 문제라도 계기만 주어지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이게 문제이고,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기회가 주어졌다. 영역 단위 공간혁신과 교가·교훈 새로 쓰기. 열악한 환경을 조금 바꿔보자는데 반대할 사람 없다. 양성평등에 반하는 교가·교훈을 21세기에 그대로 갖고 있을 수도 없다.

공간혁신은 업무 성격상 교원, 일반직, 공무원, 학부모, 학생 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TF가 만들어졌고 사업추진 개념과 구성원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본관의 방치된 일부 공간을 주된 대상으로 하되, 室 재배치를 병행하여 교육활동 편의와 업무환경을 개선했다.

- ☑ 2층 방송실(노후, 폐쇄형)을 개방형 방송국으로 시설 보강, 환경 재구축
- ☑ 3층 넓은 휴게공간을 스터디카페형 휴게실로 리모델링
- ☑ 4층 방치 교실을 다목적, 다용도 미래 교육 공간으로 환경 재구축
- ☑ 5곳으로 분산된 **특수교육 공간**을 1층 우측 전체 공간으로 재정비(* 거점학교)
- ☑ 2곳의 **운동부(카누부) 체력단련실**을 별관 5층으로 재정비
- ☑ 교무실(학년부, 학생안전부, 특수교육부) 분장업무에 맞게 위치 조정, 환경 개선

교가·교훈 새로 쓰기는 교육 3주체 외에 동문회까지 참여했다. 공모전,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치며 결과를 끌어냈다. 미래 역량을 지향하는 새로운 교훈(착한 마음, 웃는 얼굴, 남치는 호기심)과 인화여고의 정감을 가득 담은 교가 가사가 새로 만들어졌다.

두 사업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했고, 사전에 절차를 충분히 논의하며 세웠고, 실질적으로 의사소통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리하지 않았다. 둘째, 결과가 좋았다. 학교는 더 안전해지고 밝아졌으며, 각 실 환경이 필요에 맞게 개선되었다. 한 학생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학교를 바꿀 수 있구나!” 셋째, 담당 교사가 보람을 느꼈고, 성장했다. 공간혁신 담당자는 『세바시(2021.2.12.)』에서, 교가·교훈 프로젝트 담당자는 『KBS 다큐온(2020.12.19.)』에서 자신의 사례를 이야기했다.

2. 2020년, 고교학점제 연구과제로 연계

성공 경험은 용기를 낳는다. 2020년 공간혁신 규모가 학교 단위로 커져도 위축보다 의욕이 감지되었다. 별관동을 개축 수준으로 리모델링하는 힘든(?) 과제임에도 TF 참여자가 10여 명에서 20여 명으로 늘었다.

추진 관점은 단순하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알맞은 최적의 학교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요컨대, 공간혁신 업무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주된 과제로 삼았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서 우리 학교가 실천한 공간혁신, 교육과정, 학교문화가 연쇄하는 흐름을 정리해본다. (※ 밑줄은 학교의 실천 키워드)

- ① 출발점(우선순위)은 학생! 진학계 고등학교로서 **학생의 성공적인 진로진학**을 학교 교육의 맨 위에 둔다.
- ② 성공적인 진로진학의 要諦는 학생의 **기초학력과 역량**이다. 학력과 역량은 學生簿에 담겨 있다.

【연구과제1: 교육과정 혁신】

- ③ 기초학력과 역량은 수업과 직결한다. 수업은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배울 때 효과가 있다.
- ④ 수업을 뒷받침하려면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자리 잡아야 한다.
- ⑤ 공강 시간을 꺼리면 개인(선택) 시간표가 나오기 어렵다. 공강을 수용하는 **탄력적 학사 운영**이 필요하다.

【연구과제2: 공간 혁신】

- ⑥ 공강을 꺼리는 이유는 학교에 학생이 머물 공간이 마땅찮기 때문이다. 안전하고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⑦ 개별시간표 편성이 어려운 이유가 또 있다.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뿔뿔날썩한 수강자 수를 기존 획일적 교실의 형태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가변적인 교실 공간**이 필요하다.

【연구과제3: 학교문화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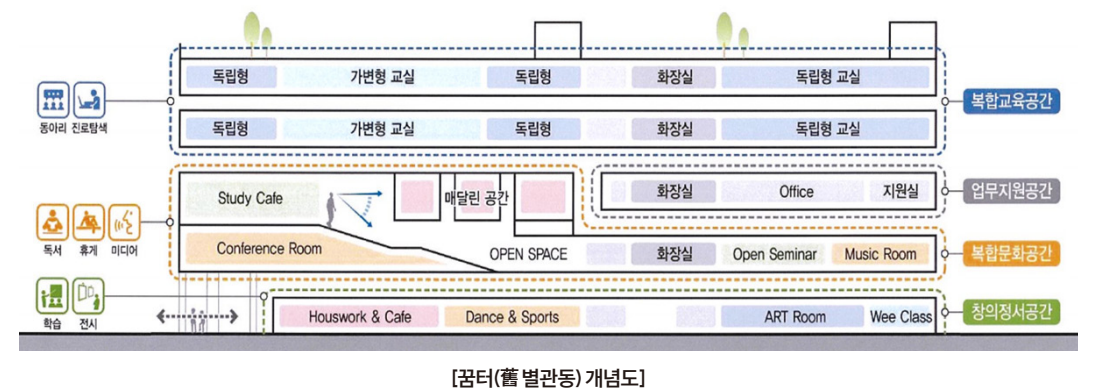
- ⑧ ①~⑦에 걸맞은 **교원의 전문성, 학생의 자기주도성**이 자리 잡아야 한다.
- ⑨ 교원의 전문성과 학생의 주도성은 학교 구성원 간 다양한 **소통 시스템** 속에 가능하다.

요컨대, 공간혁신은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과 동전의 양면이고, 소통의 학교문화는 이를 떠받치는 실천 기반이다.

●● 실천(實踐)

1. 꿈터 만들기

2020년 전체 구성원의 참여로 별관동 개념 설계를 완성했다. 개념도가 나오기까지 1년여 기간은 학점제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진행될 수업을 상상하는 시간이었다. 구석구석 학교 구성원들의 정성이 배어있지 않은 곳이 없다.



- ☑ 1층(실습/활동형 수업/교육 공간) : 복도 없이 곧바로 출입 가능, 전·후면 데크 구축으로 교실을 확장하여 실기·실습 교육 가능
- ☑ 2층(진로진학정보센터, 복합문화 공간) : 학생이 진로진학 및 미래 설계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환경 구축 (*동선을 단축하는 홈베이스 기능)
- ☑ 3층(학생자율자치 공간) : 학생자치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연계 복층 공간으로 학생 중심의 다양한 활동 보장, 공강 시간에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 이동수업에 따른 동선 문제 해결)
- ☑ 4, 5층(가변형 교실) : 다양한 진로 선택 과목이 수강자 수 상관없이 가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실 환경 구축
- ☑ 교과교육연구실, 세미나실, 협의실, 원격수업실 등 교사의 교육 연구 환경 보장
- ☑ 본관 연계 교육과정 운영 방안 마련 : 본관 포함 3개 구역 설정
 - 배움터(본관 좌측) : 1칸 교실로 학급 단위 수업이 가능한 기초 교과 운영
 - 이룸터(본관 우측) : 1.5칸 교실로 과학, 정보 등 실험 실습 중심 교과 운영
 - 꿈터(별관 전체) : 진로 선택 과목, 체육·예술, 생활·교양 교과 운영

공사 기간 중 운동장에 모듈러 교실이 설치되어 1학년이 1년간 사용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모듈러 교실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설치하기 전, 2~3달에 걸쳐 대상 학년의 교육과정, 학생 동선, 공간 가변성, 코로나 상황, 적정 실 배치를 연구하고 연구한 결과였다(※ 교육부 TV에서 운영사례 소개, 2022.1.25.).

공사를 마치는 시점에 별관동의 명칭을 공모했다. ‘꿈터’로 명명되었다. 성공적 진로진학의 꿈을 이루는 무대를 의미한다. 꿈터의 가치는 공들인 공간들이 원래 의도대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학생들이 머물고 있는가? 다양한 선택 과목의 수업이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는가?

2. 수업이 되도록 하는 교육과정

그릇을 만들며 레시피를 구상하듯, 꿈터를 만들면서 교육과정을 다듬었다. 단위수 부족으로 위태로운 교과목은 없는지, 교사가 부족해서 버려지는 과목은 없는지, 필요하나 선택이 부족한 과목은 없는지, 과목의 특성에 맞게 적정 단위가 확보되고 있는지, 학생의 진로진학을 위해 필요한 교과목이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미래를 먼저 예측하여 도전적으로 개설되어야 할 과목은 없는지 계속 다듬었다. 아울러 인천형 교과 특성화 학교, 동아시아 시민학교, AI 데이터리터러시 모델학교 등을 운영하며, 교과목 간 틈새를 메우고, 보강하고, 교과 운영의 안정성을 기했다.

학생 선택권 확대는 修辭가 아니라 실행이어야 한다. 우리 학교의 실천을 세 측면으로 요약한다. 첫째, 교육과정 편성 측면에서 이른바 ‘칸막이’ 제거를 통해 교과 영역 간 선택폭을 확대하고, 학기 집중 이수 과목 수를 늘렸다. 둘째, 신청 기회와 절차의 측면에서 학생의 수강 신청의 기회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변경 절차를 체계화하여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 또한 조건부 과목 개설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의 주어진 여건 안에서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학생 선택 유형의 측면에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수준별 교과(영어, 수학) 편성 방안 모색, 교과 특성화학교/모델학교 운영을 통한 과목 개설 등으로 선택의 안정성과 質을 담보하고자 했다. 서두에 언급한 일본어 수업은 이와 같은 실천의 바탕 위에 가능했다고 본다.

[인천 동아시아 미래과정(교과 특성화) 운영을 통한 선택 과목 개설 사례]

교과	1학년	2학년	3학년
탐구		사회문제 탐구/과제 연구	동아시아사
제2외국어	중국어Ⅰ, 일본어Ⅰ	중국어Ⅱ, 일본어Ⅱ	중국어/일본어 독해와 작문Ⅰ
교양		동아시아 시민*	세계시민교육*

*학교장 신설과목

● 나가며: 새로운 학교문화 만들기

간혹 이런 생각을 해 본다. 외국 학교 방문했을 때⁰²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던 것들을 왜 우리는 엄두 낼 생각을 하지 않을까? 다른 분야에서는 외국의 좋은 것을 접하고 곧 추월하는 모습을 흔하게 보는데, 유독 교육만큼은 더딘 듯하다. 외국의 좋은 것을 보면서 ‘우리도 빨리 저렇게 해 보자’ 보다는 ‘우리는 이래서, 저래서 안되’는 이유를 더 찾는 듯하다. 기실 우리 학교에도 공간혁신을 견학하는 방문객이 많다. 관찰해보면, 간혹 비슷한 경우를 본다. 예산이 넉넉해서, 입지가 좋아서, 교실 여유가 있어서, 여학교라서, 비교만 무성하다.

고교학점제 정책이 언급된 지 6년이고, 연구·선도학교 운영만 벌써 5년을 지나고 있다. 학점제와 관련하여 나올만한 것은 다 나왔고, 경험이나 사례가 부족한 것 같지도 않다. 선진 외국의 대부분 학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학점제를 우리가 못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둘러보면 여전히 근심이 많다. 왜 그럴까? 여전히 입시(수능)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食傷하다.

결론적으로 우리 학교가 주목한 것은 ‘학교문화’다. 일종의 관점이라 하겠는데, 학교의 익숙한 관행으로 학점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학점제를 기준으로 현재의 학교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학교가 힘들다면, 아마도 전자에 머물러 있기 때문 아닐까? 후자의 입장에 서면 상식처럼 생각했던 많은 부분을 재고하게 된다. 학사일정, 교실 활용, 업무 수행 방식, 판단 기준, 행위 주체, 우선순위 등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서두에서 언급한 굵직한 여러 개의 사업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 학교가 一新했다면 바로 이런 관점의 전환 때문이라고 자평한다.

02 필자는 2012년(교과교실제 담당자 국외연수로 영국, 프랑스), 2018년(교장자격 연수로 미국, 캐나다) 외국 학교를 견학했음



[동아리 활동]



[지식재산일반·융합진로]

내년 고등학교 입학생들은 204단위가 아닌 192학점을 이수한다. 숫자도 달라지고 용어도 달라졌지만, 정말 달라진 것은 ‘학생’일 것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지금까지의 틀을 가지고 내년 학생들을 맞이한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3년간 ‘192학점’이 학생들에게 유의미하게 당도록 설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게 우리의 몫이라면, 키르케의 유혹을 떨치고 다시 험난한 바다로 나섰던 오디세우스 같은 마음을 품어봄직 하겠다.

※ 참고: 교과 교육과정을 구현한 수업 실천 사례 1

- 과목명 : 탐구 기반 영어 글쓰기(* 2022년 학교장 신설과목)
- 과목 개설 배경
 - 구도심권 소재 학교로 영어과 학력 수준이 다소 낮은 편이지만, 일부 학생 대상으로 수준별 지도 필요성 제기
 - 동아시아 시민학교 지정에 따라 국제교류 진행에 필요한 영어 글쓰기 지도 필요성(* 단순한 작문이 아니라 지역 탐구를 바탕으로 한 글쓰기)
 - 필요한 지도를 위해서 총론 고시 과목이 아닌 지역 탐구 기반의 글쓰기를 위한 학교장 신설과목을 개설 결정
- 과목 개설 과정
 - (2021년 하반기 ~ 2022.2.) 교육과정안 작성
 - (2022. 3.) 학교장 신설과목 승인 신청(* 자율학교)
 - (2022. 5.) 시교육청의 과목 신설 승인, 2학기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
 - (2022. 6. ~ 8.) 2학기 과목 개설(수강인원 8명), 교재 개발
 - (2022. 2학기) 과목 운영 중
- 지도 교사 : 2명(* 신설과목 성격상 2명의 교사가 상호 협의하며 지도)
- 수업 및 평가 :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하며, 수업=평가의 개념으로 운영
- 수업 내실화 방안
 - 쓰기 관련 전문가 컨설팅(자문), 담당 교사 상시 협의로 수준별 쓰기 수업 전문성 제고
 - 대학생 멘토링, 발표 등 참여자 만족도 높은 수업 진행
- 의미
 -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교과 교육과정)이 실제 학교 여건에 맞는 과목 개설 및 수업 진행으로 이어짐
 - 성취평가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수업-평가를 그대로 실천함
 - 수업 방식과 평가 내용이 향후 일반고 수준에서 IB 교육과정 적용을 논의할 경우, 대단히 참고할 만한 의미 있는 수업사례가 될 것임

탐구 기반 영어 글쓰기
(Inquiry-Based English Writing)

1. 성격

교육에서의 ‘탐구(Inquiry)’는 발견의 과정, 본능이 표현하는 과정, 아이디어를 검사하는 과정이다. 즉, 탐구는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이해와 그 이해에 기반을 둔 우리의 행위에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활동이다. 그렇기에 탐구는 연구자가 지식을 이해하고 추구하는 권형적 방법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익혀야 하는 삶의 태도이자 문제 해결 방식이며, 많은 교육자가 소중히 여기는 교육적 가치로 여겨져 왔다.

영어교육에서 탐구는 특히 쓰기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다. 호기심, 열린 마음, 참여, 창의성, 지극성, 책임감, 유연성, 상회 인지와 같은 요소가 성공적인 쓰기 학습에 필요한데, 이것들은 탐구 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함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탐구 기반의 쓰기 지도는 학습에 대한 학습자 주도적, 경험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프로젝트 기반의 쓰기 지도와 밀접상통한다. 탐구 기반의 쓰기 지도를 통해 학습자가 실생활을 반영한 유의미하고 긴장감 있는 언어 사용에 몰입하도록 하고, 능동적으로 선행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관심 주제에 관

【교육과정안】

고시 외 과목 신설 승인 신청서	
과목명	(한글명) 탐구 기반 영어 글쓰기 (영문명) Inquiry-Based English Writing
기존 개설 과목 및 유사 과목 확인	기존 개설 과목 및 유사 과목이 없음을 확인함(○)
과목 신설의 필요성	<p>학습자가 자신의 실제 삶과 사회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자기 주도적인 탐구 과정을 거쳐 영어로 글을 작성함으로써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임</p> <p>자율학교로서 학교의 교육 여건, 원도시에 소재한 지역적 특성,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특색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p> <p>• [동아시아시민학교] 학장이 지역사회와 문제에 관해 탐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인성과 동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 활동을 운영할 수 있으며, 동아시아 각국의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배경에 따른 주제 선정 후 공동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음</p> <p>• [행복배움학교] 교과서로 한정되지 않고 학생이 자기 삶에 의미 있는 주제를 선택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의 다양화, 지역화, 특성화를 도모하고 인성이라는 지역의 교육적 요구와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학생이 스스로 계획하고 배우는 수업을 통해 학습자 주도성을 기를 수 있음</p> <p>•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따라 영어교육에 대한 더욱더 다양한 학생들의 수요와 기대를 반영하고 개별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 - 수업 -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교과 연계 진로학업설계 시스템 운영과 이를 통한 학생의 진로 역량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음</p>

【학교장 신설과목】

※ 참고: 교과 교육과정을 구현한 수업 실천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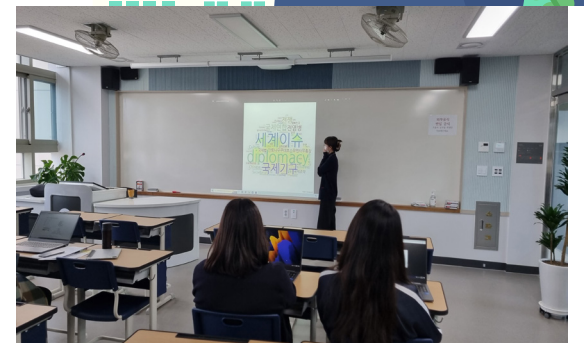
- 과목명 : 기술·가정(1학년), 공학일반(2학년), 지식재산일반(3학년)
- 수업의 특징
 - 공간혁신으로 구축된 기술교과실 활용, 기술·가정 교과 3과목을 지도(* 다과목 지도)
 - 여학생의 이공계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선택 교육과정 운영하고, 공학 활동 체험 프로젝트를 통한 수업 재구성 사례를 보여줌
- 진행 교과목, 교육활동
 - 1학년 기술·가정 : 이공계 기초 체험 수업 진행
 - 2학년 공학일반 : 공학 프로젝트 진행
 - 3학년 지식재산일반 : 융합진로 프로젝트
 - 방과후학교 : 에어로다이나믹(항공우주공학) 운영
 - 창체 동아리 : 창의공학설계부(기초공학프로젝트)
- 수업, 평가, 기록 : 학생의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
- 의미
 - 학년별 각 과목 지도와 함께 동아리 활동(창의공학설계)과 방과후 프로그램(에어로다이나믹)을 운영하여 [교과 + 창체 + 방과후]의 전체 과정을 통해 진로연계 교사 교육과정을 구현
 - 잘 갖추어진 기술실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진로연계 교육을 학생 눈높이에 맞게 진행하여, 수학, 과학 등 연관 과목 선택으로 이어지도록 함

【교재】

Contents	
Part I. Dive into Inquiry	
Unit 1 The Power of Curiosity	1
Unit 2 The Spirit of Inquiry	3
Unit 3 Guide to Inquiry-Based Learning	8
Unit 4 Introduction to Literature Review	24
Unit 5 Overview: Research Proposal Basics	36
Unit 6 Becoming a Brilliant Presenter	41
Part II. The Writing Process	
Unit 7 Background to Writing	52
Unit 8 Evaluating a Text	54
Unit 9 Understanding Purpose and Register	56
Unit 10 Selecting Key Points	59
Unit 11 Note-Making	61
Unit 12 Paraphrasing	63
Unit 13 Summary Writing	65
Unit 14 Combining Sources	67



【수업모습】



【수업모습】

교육과정 변화 및 고교학점제에 따른 진로 교육의 방향

연수여자고등학교 교사
김성길



들어가며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과 직업을 통해 행복을 얻게 된다. 자신이 원했던 진로에 적합한 직종에 종사할 때 직업 만족도가 높아지며, 이는 곧 삶의 만족도와 직결되어 행복한 삶을 이루는 토대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직업 생활의 성공은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진로 교육은 개인의 진로 선택, 적응, 발달에 초점을 둔 교육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선택하고 선택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평생동안 학교, 가정, 사회에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도와주는 활동을 총칭한다.

현대사회는 노동시장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기도 하고, 과거에 있던 직업이 없어지기도 하면서 직업의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평생 직업은 있지만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직업 정보를 알고, 진로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촉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진로교육과 진로지도가 이루어질 때 사회적으로는 시대적 흐름과 사회의 발전 및 변화에 부응하는 전문인이 양성되고, 개인적으로는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통한 자아실현이 가능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진로 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로 교육의 학교 실천을 지향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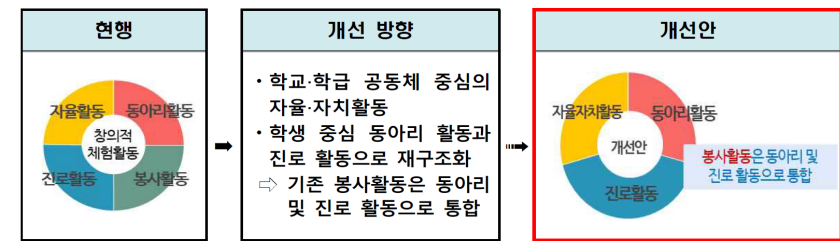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변화로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진로 교육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2022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으로 ‘포용 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 지역·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교육 구현, △ 디지털·AI 교육 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을 제시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 개선 방향

학생의 발달 수준 및 학교급별 특성, 현장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재구조화되되, 학생의 자기 주도성과 선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고등학교 교과목 구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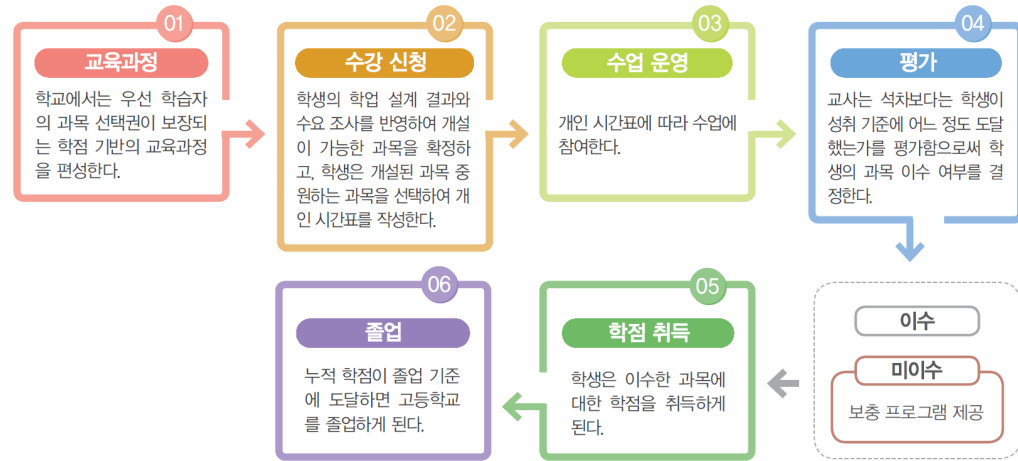
교과(군)	공동과목	선택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국어	공통국어 1, 2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주제 탐구 독서 문화와 영상, 직무 의사소통	독서 토론과 글쓰기 매체 의사소통, 언어생활 탐구
수학	공통수학 1, 2 (기본수학 1, 2)	대수,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I, 기하,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직무 수학	수학과 문화, 실용 통계 수학과재 탐구
영어	공통영어 1, 2 (기본영어 1, 2)	영어 I, 영어 II, 영어 독해와 작문	영미 문학 읽기, 영어 발표와 토론 직무 영어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 문화와 영어
사회 (역사/ 도덕포함)	한국사 1, 2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동아시아사 주제 탐구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통합사회 1, 2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정치, 경제, 법과 사회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과학	통합과학 1, 2 과학탐구실험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국제 관계의 이해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체육	체육 I, 운동과 건강 I (음악/미술)	체육 II, 운동과 건강 II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빛 물질과 에너지 화학반응의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 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체육 탐구	세상과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지구시스템과학 행성 우주과학	
기술·가정 /정보	기술·가정	체육 I, 운동과 건강 I	세상과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지구시스템과학 행성 우주과학	스포츠 생활 (미니) 스포츠 활동과 분석
		체육 II, 운동과 건강 II	체육 탐구	
제2외국어 /한문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와 창작,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음악과 미디어 미술과 매체
		로봇과 공학세계 가족과 가정생활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창의 공학 설계, 지식 재산 일반 생애 설계와 자립 (미니)아동발달과 부모 소프트웨어와 생활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독일어 회화, 프랑스어 회화, 스페인어 회화, 중국어 회화, 일본어 회화, 러시아어 회화, 아랍어 회화, 베트남어 회화	독일어권 문화, 프랑스어권 문화, 스페인어권 문화, 중국 문화, 일본 문화, 러시아 문화, 아랍 문화, 베트남 문화
		심화 독일어, 심화 프랑스어, 심화 스페인어, 심화 중국어, 심화 일본어, 심화 러시아어, 심화 아랍어, 심화 베트남어	독일어권 문화, 프랑스어권 문화, 스페인어권 문화, 중국 문화, 일본 문화, 러시아 문화, 아랍 문화, 베트남 문화	
	한문	심화 한문	언어생활과 한자	
		인간과 철학, 삶과 종교 논리와 사고, 인간과 심리 교육의 이해, 보건	인간과 경제활동 논술	
교양	진로와 직업, 생태와 환경	인간과 철학, 삶과 종교 논리와 사고, 인간과 심리 교육의 이해, 보건	인간과 경제활동 논술	

※ 음영이 있는 과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전문교과 I의 외국어계열과 국제계열 과목을 보통교과로 재구조화한 과목임

고교학점제

고교 학점제란?

학생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 제도



수업량 적정화

1학점 수업을 50분 기준 17(16+1)회에서 16회로 전환하고, 여분의 수업량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자율적 운영

구분	현행(단계적 이행)		2022 개정 '25~ 학점
	'21~'22	'23~'24	
수업량 기준	단위	학점	학점
1학점 수업량	50분 17(16+1)회	50분 17(16+1)회	50분 16회*
총 이수학점	204단위	192학점	192학점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비중	교과 180 창의적 체험활동 24	교과 174 창의적 체험활동 18	교과 174 창의적 체험활동 18

교과 재구조화

고교 단계 공통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과목 유지, 일반 선택과목 적정화, 다양한 진로 선택과목 재구조화 및 융합 선택과목 신설

- **공통과목**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한국사 ⇒ 학생 수준에 따른 대체 이수 과목 운영 (기본수학, 기본영어)
- **선택과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전문교과 I 을 보통 교과로 편입, 융합 선택과목 신설

< 현행 >		< 개편 방안 >				
교과	과목	교과	공통과목	선택과목		
보통	공통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일반 선택과목			교과별 학문 영역 내의 주요 학습내용이해 및 탐구를 위한 과목	교과별 심화 학습 및 진로 관련 과목	교과내·교과간 주제 융합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
	진로 선택과목					

학점 이수 기반의 학사 운영

-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점 기반의 졸업제도가 도입됨
- 학생이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출석률(수업 횟수의 2/3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3년간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어야 졸업 가능함

< 현행 >		< 향후(고교학점제 시행 후) >	
성취율	성취도	성취율	성취도
90% 이상	A	90%이상	A
80% 이상~90% 미만	B	80%이상~90%미만	B
70% 이상~80% 미만	C	70%이상~80%미만	C
60% 이상~70% 미만	D	60%이상~70%미만	D
60% 미만	E	40%이상~60%미만	E
		40%미만	I

▲ 이수
▼ 미이수

* 미이수 과목에 통상 F학점을 부여하나, 단어의 의미(Fail)를 고려하여 I(Incomplete) 사용

- 미이수 학생이 생긴 경우에는 '보충 이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함
- 보충 이수는 개별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프로그램, 온라인 과정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며, 보충 이수 후 부여되는 성적에 상한을 둠(미이수 → 보충 이수 → 성취도 E)

진로 교육의 방향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기회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 스스로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의 '선택'을 강조하는 것도 모두 이와 같은 목적과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 역시 학생이 관심과 흥미를 갖고 선택한 교과목의 이수 여부와 성적을 평가의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다.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관심 있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온라인 강의, 타학교 연계형, 지역대학 협력형, 지역 교육시설 활용형 등 다양한 유형의 교육과정을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리 중학교 때부터 자유학기제를 체험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때부터 자신의 진로와 흥미·적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문제 풀이만 한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교과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따른 교과 선택을 돕기 위해 가이드 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같은 안내를 잘 참고하여 자신의 진로에 따른 교과목 선택해 나간다면 보다 수월하게 진로의 방향에 따라 원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24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서울대학교)

- 핵심 권장과목: 학과(부)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 권장과목: 학과(부)에서 공부하기 위해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 권장과목을 제시하지 않은 모집 단위는 학생의 진로·적성 따른 적극적인 선택과목 이수를 권장함

모집 단위			핵심 권장과목	권장과목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	미적분, 확률과통계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미적분, 확률과통계, 기하	-
	통계학과		미적분, 확률과통계, 기하	-
	물리학·천문학부	물리학전공	물리학Ⅱ, 미적분, 기하	확률과통계
		천문학전공	지구과학Ⅰ, 미적분, 기하	지학Ⅱ, 물리Ⅱ, 확률과통계
	화학부		화학Ⅱ, 미적분	확률과통계, 기하
	생명과학부		생명과학Ⅱ, 미적분	화학Ⅱ, 확률과통계, 기하
지구환경과학부		물Ⅱ or 화Ⅱ or 지Ⅱ, 미적분	확률과통계, 기하	
간호대학			-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공과대학	광역		미적분, 확률과통계	기하
	건설환경공학부		미적분, 기하	확률과통계
	기계공학부		물리학Ⅱ, 미적분, 기하	확률과통계
	재료공학부		미적분, 기하	물리학Ⅱ, 화학Ⅱ, 확률과통계
	전기·정보공학부		물리학Ⅱ, 미적분	확률과통계, 기하
	컴퓨터공학부		미적분, 확률과통계	-
	화학생물공학부		물리학Ⅱ, 미적분, 기하	화학Ⅱ or 생명과학Ⅱ
	건축학과		-	미적분
	산업공학과		미적분	확률과통계
	에너지자원공학과		물리학Ⅱ, 미적분, 기하	확률과통계
	원자핵공학과		물리학Ⅱ, 미적분	-
	조선해양공학과		물리학Ⅱ, 미적분, 기하	확률과통계
	항공우주공학과		물리학Ⅱ, 미적분, 기하	지구과학Ⅱ, 확률과통계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	미적분, 확률과통계
	식물생산과학부		생명과학Ⅱ	화학Ⅱ, 미적분, 확률과통계, 기하
	산림과학부		-	-
	식품·동물생명공학부		화학Ⅱ, 생명과학Ⅱ	-
	응용생물화학부		화학Ⅱ, 생명과학Ⅱ	미적분, 확률과통계, 기하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미적분, 기하	물리학Ⅱ, 확률과통계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미적분, 기하	물리학Ⅱ, 화학Ⅱ

모집 단위		핵심 권장과목	권장과목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	-
	지리교육과	-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
	윤리교육과	-	-
	수학교육과	미적분, 확률과통계, 기하	-
	물리교육과	물리학Ⅱ	미적분, 확률과통계, 기하
	화학교육과	화학Ⅱ	미적분, 확률과통계, 기하
	생물교육과	생명과학Ⅱ	화학Ⅱ, 미적분, 확률과통계
	지구과학교육과	지구과학Ⅰ	지학Ⅱ, 미적분, 확률과통계, 기하
생활과학대학	소비자 아동학부	소비자학	-
		아동가족학	-
	식품영양학과	화학Ⅱ, 생명과학Ⅱ	-
	의류학과	-	화학Ⅱ, 생명과학Ⅱ or 확률과통계
	수의예과	생명과학Ⅱ	미적분, 확률과통계
약학대학	약학 계열	화학Ⅱ, 생명과학Ⅱ	미적분, 확률과통계
의과대학	의예과	생명과학Ⅰ	생명Ⅱ, 미적분, 확률과통계, 기하
자유전공학부		-	미적분, 확률과통계

나가며

미래의 지능정보사회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다양한 지식을 선택하고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면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졌다. 세계는 정답 없는 교육, 잠재력을 인정하는 교육으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하고 있다.

지식만 강조하는 문제풀이식 교육, 한 줄 세우기 교육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생각을 할 틈을 주지 못한다. 이제 우리 교육은 ‘교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로 전환되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선한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정착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극 참여하며 학습 흥미와 동기를 높이고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함으로써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
- 진학특강(이오복스)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 당신의 꿈을 실현하는 학교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교사
성미나

춡고 떨리는 대한민국의 11월이 또 다가왔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의 변화도 그 원인이 되겠지만 40만명의 수험생과 그 가족들이 맞이해야 할 ‘수능’이라는 한파의 영향이 더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고등학생 누구나 대학 진학을 위해 12년간 공부해 온 것을 한 번에 쏟아부어 도전해야 하는 대학 수능능력시험. 각종 언론과 교육계가 11월 한 달 동안 이 시험에 집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 큰 관심을 두고 있고 다수의 학생이 응시하는 시험이다 보니 대학수능능력시험은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치루는 시험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바로 직업계고 학생들입니다.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는 직업계고 중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직업계고등학교에는 산업인력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와 특정 분야 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전경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는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상업계고 여자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상업계고등학교라고 하면 대부분 전통적인 회계나 금융 분야를 떠올릴 것입니다. 본교 역시 초창기에는 금융, 회계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었던 특성화고등학교였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본교는 꾸준한 학과와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현재 항공서비스과, 부서관경영과, SNS마케팅과, 콘텐츠디자인과의 4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교에서 운영 중인 학과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소개할 학과는 항공서비스과입니다. 인천 최초로 항공 서비스 분야 특성화고 학과인 항공서비스과를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 서비스 분야 교육과정을 통해 항공 및 관광 분야 인력을 지금까지 꾸준히 배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잠시 관광 분야 취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시 관광 분야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학과입니다. 항공 분야뿐 아니라 최근에는 객실 서비스, 호텔 식음료 서비스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그 진로의 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되었던 제12회 전국상업경진대회 호텔식음료서비스 부문에서 두 명의 학생이 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부문에 처음 출전해서 거둔 성적인 만큼 앞으로 더 큰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항공서비스과에는 학과 대표 동아리인 ‘바름이’가 있습니다. 항공기 실내를 그대로 옮겨 놓은 실습실에서 이미지 메이킹, 기내 항공 서비스 실습 등을 외부 전문 강사를 통해 배우고,



인천직업교육박람회에 참가한 항공서비스과 동아리 '바름이'

학교 행사 및 교육청 행사 등에서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습해 보고 있습니다. 항공서비스과 학생들은 전공 실무 수업을 통해 항공권 발권 및 예약 프로그램을 배우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전공과 관련하여 항공운항과, 호텔경영과 등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학과 공부에 도움이 되어 대학 입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둘째로 소개할 학과는 부사관경영과입니다. 부사관경영과는 여군 부사관 양성을 목표로 2019년 첫 신입생을 모집한 학과입니다. 기존에도 여군 부사관 동아리 운영을 통해 부사관을 배출해 온 학교는 있었으나, 학과로 개설하여 체계적으로 여군 부사관을 양성하는 경우는 우리 학교가 인천에서 최초이자 유일합니다. 부사관이 되기 위한 태권도, 군 리더십, 부사관 역할과 실무 등을 전공으로 배우고, 부사관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부사관을 희망한 학생 16명이 전원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였고, 최종적으로 13명이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현재 복무 중입니다. 2022년에도 희망자 전원이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면접고사를 보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입학 당시 부사관을 희망하여 부사관경영과에 진학하였으나, 진로 희망을 변경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경영·사무 교육과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사관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취업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셋째로 소개할 학과는 SNS마케팅과입니다. 2022년에 기존의 금융사무과를 SNS마케팅과로 개편하였습니다. 개편의 이유는 4차 산업혁명과 언택트 기반 비즈니스 확산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전통적으로 취업과 대학 진학 모두 강세를 보인 금융사무과이지만 새로운 트렌드인 SNS를 접목한 경영 및 마케팅을 배운다면 취업뿐 아니라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도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학과 개편을 결정하였습니다.



인천비즈니스고 부사관경영과 동아리 '진짜 부사관'

마지막으로 콘텐츠디자인과를 소개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선호하는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기 위하여 스마트 IT과를 콘텐츠디자인과로 개편하였습니다. 자신이 콘텐츠를 직접 디자인하고 그것을 활용한 아이템을 개발해 보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장점을 살려 취업 및 진학의 기회도 더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및 산업 현장의 변화에 맞추어 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는 학점제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2학년부터 자신의 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의 과목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학 당시 선택한 학과를 바꾸고 싶거나, 자신의 전공과 더불어 다른 학과의 전공을 배워보고 싶은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중3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아직도 직업계고등학교보다는 일반계고등학교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일반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여 더 많이 공부한 후 취업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이 공부에 큰 흥미나 자신감이 없어도 그냥 막연히 일반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3학년이 되어서야 직업 교육을 위해 위탁 교육을 신청하여 본인의 학교가 아닌 학원이나 산업학교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성화고에 진학하면 3년 동안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공부를 하면서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것을 2년의 시간을 허비한 후에야 깨닫게 되어 그만큼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모두 취업을 위해 공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중학교 때까지 학업에 흥미가 없었던 학생들도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흥미 있는 분야의 공부를 하다가 심화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대학 진학으로 진로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학 진학에서도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본교를 졸업한 친언니가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교수님께 인정받으며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언니처럼 되고자 본교에 진학 하였습니다.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갔다면 중위권 정도의 내신 성적을 유지했을 것이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원 수강과 야간 자율학습 등으로 힘들고 지루한 학교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교에 진학하여 현재 학과에서 1등을 놓치지 않고 있으며 다방면에서 인정받는 학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입학 당시에는 언니처럼 대학에 진학하려 했으나 지금은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졸 취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제도가 매우 많습니다. 선취업 후학습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등록금을 지원받아 대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취업과 동시에 계약학과로 진학하여 대학 공부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마다 점차 선취업 후진학 학과를 늘려가는 추세이고, 대학교에 중소기업 계약학과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라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하는 학생들의 대학가기는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교에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로 진출하여 우수한 직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직업역량을 키우고, 징벌 위주의 생활지도가 아닌 칭찬을 통해 학생들의 품성을 키워나가는 INBI BANK 제도가 있습니다. INBI BANK는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 주도적 성장 로드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성과 활동, 역량, 시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은 INBI BANK 데이터베이스에 학생 활동 상황을 3년간 누적 기록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통장에 활동 내용을 기록해 자기 주도 성장을 위해 힘씁니다. INBI BANK의 인성 영역은 인사 예절과 수업 태도, 선행 등에 마일리지를 부여해 학생들의 바른 생활 태도 향상을 돕고, 활동 영역은 학교 행사 도우미, 학교 행사 참여, 방과 후 수업 참여도 등을 기록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습관화하도록 유도합니다. 2021년 도입된 제도로 도입 첫해에는 총 253명의 학생이 자격역량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작년에는 INBI BANK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INBI 마켓이 열렸고, 올해 10월에는 20명의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제주도로 2박3일의 INBI CAMP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INBI BANK 도입 이후,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뀌었고 학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자발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 진로교육 중점학교로 학과별 진로 캠프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고교학점제 바이블' 책자를 제작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3년간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찾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이 자율동아리와 연계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렇게 취득한 자격증을 바탕으로 취업 및 창업의 기회를 모색하게 됩니다. 바리스타 1, 2급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바리스타 동아리, 양금 플라워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양금 플라워 떡케이크 동아리, 반려동물 수제 간식 및 용품을 제작하는 러블리 동아리, 특수 분장 동아리, 칵테일 만들기 동아리, 네일아트 동아리 등 전공 관련 뿐아니라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동아리들을 다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에는 자격증과 연계한 동아리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실력을 갖추어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실제 졸업생 중에는 바리스타 동아리 활동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하여 카페를 창업하고, 네일아트 자격을 취득하여 네일아트 숍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는 행복배움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행복배움학교로 재지정되어 학생들이 자치와 공존을 통해 자존감을 키우며 진로에 대한 희망을 갖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NBI CAMP



인천비즈니스고 바리스타 동아리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작은 성공을 경험하고 그런 작은 성공들이 자존감을 높여주어 흥미가 실력이 될 수 있도록 개별맞춤형 학생 성장 교육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진 역량을 키워가고, 원하는 일을 하며 자신이 있는 곳에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성화고인 본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으로 대변되는 입시를 위한 공부만이 아닌, 자신을 알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자세를 길러주는 것, 더 큰 배움을 찾아갈 수 있는 작은 출발점을 만들어 주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도 본교 교직원들은 모두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학 입시를 위해 한 방향으로만 달려 나가는 현 교육의 흐름에서 살짝 벗어나 있더라도 누구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졸업생을 배출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굴러들어온 보물들 다름이 아닌 특별한 아이들

인천한누리학교 교사
윤소영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말은 다양함을 의미하지만, 학교 안에서 아이들은 ‘다문화’라는 말을 나와 다름을 구별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곤 한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무대는 대한민국이 아닌 ‘전 세계’이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인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한누리학교 학생들은 우리에게 굴러들어온 보물과도 같은 아이들이다. 물리적 이동 없이 옆에 있기로 해도 세상을 넓혀주는 그런 학생들이다.

한누리학교는 ‘한국학교는 이렇게 해야 해’가 아니라 ‘한국학교는 이렇게 달라’를 이야기하며 적응을 위한 다름을 인식시키며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이 함께 있기에 A부터 Z까지 문화적으로 다른 것들에 대해 아이들은 함께 서투른 한국어로 대화하며 먼저 온 학생이 나중에 온 학생에게 알려주며 배움을 수행하고 있다.



언어권이 같은 아이들은 통역사의 역할을 하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이상적인 배움이 있는 이곳이 바로 한누리학교이다.

●● “처음 만나는 대한민국”

한누리학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처음 만나는 대한민국의 첫 사회이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정현종의 시를 읊조리며 입학 상담에 참여한다. 여기에는 난민, 특별기여자 등 외국인 학생과 학부모, 외국에 살다가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한국 국적 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이 있다.

모든 아이에게 자기만의 이야기와 사연이 있다. 진로진학교사로서 그 사연 속에서 학생이 ‘자의’에 의한 입국인지, ‘타의’에 의한 입국인지 유심히 살펴보게 된다. 모든 학습과 태도에 있어서 동기와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생 배경에 대한 이해는 결국 학생 맞춤형 진로지도도를 가능하게 만든다. 동시에 한누리학교에서의 입학 상담은 학부모를 만나게 되는 기회이기도 하다. 다양한 학부모의 사연 또한, 또 다른 학생들의 진로지도의 자원이 되고 있다.

상담을 하면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어떤 아이는 내내 눈빛을 마주치지 못할 만큼 부모님과 한국 생활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 땅의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에 기대를 표현하는 아이도 있었다.



아이들 모두가 이방인인 자신들을 이끌어줄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고 어깨가 무거워졌다. 하지만 교사 혼자가 아닌 한누리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유기적 시스템이 한누리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 역할은 교사뿐만 아니라 한누리의 특별한 구성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 다양한 국가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아이들이 금세 친구가 되고, 서로에 대한 관심으로 상담실을 두리번거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교사로서 인간에 대한 애정과 한누리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 꿈 자본, 친구 자본, 진로 탄력성

대안 위탁 학교인 우리 한누리학교는 초등은 6개월, 중등은 1년의 위탁 후 재위탁의 기회가 한 번이 더 있기에 1년에서 2년, 초기 대한민국 사회의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누리에 있는 학생들은 국가라는 삶의 터전을 이동하여 적응하는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다. 그러나 스스로 삶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청소년기에 터전까지 이동하게 되어 더욱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착각은 아이들을 보며 깨지게 되었다.

한누리에 있는 아이들은 한누리학교 안에서 대한민국에서의 ‘진짜 친구’를 만들어 가고 있다.

모국의 친구들과 헤어짐에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새로운 곳에서 제일 힘든 순간 함께하는 ‘진짜 친구’가 있기에 힘들어도 이겨낼 역량을 키우게 된다. 이런 역량은 진로 탄력성의 기본이기에 한누리학교는 진로 탄력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도 시스템 자체가 프로그램인 것이다.

한누리학교를 수료한 학생 중에 몽골 출신의 학생이 있다. 이 학생이 성인이 된 후에 한누리에서 만난 필리핀 출신의 친구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두 학생이 한누리학교에서 함께 했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한누리에서의 인연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함께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이들의 네트워크가 한누리 학교라는 이름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언어권별 선배와의 만남〉은 이러한 “꿈 자본”을 언어권별로 연결해주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다. 나보다 먼저 같은 길을 걸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줌으로써 꿈을 꾸게 만들고 싶었다. 역시 어른들의



좋은 이야기보다 먼저 한누리학교를 수료한 선배들의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확실한 동기를 갖게 해 주었다. 재능을 기부한 다문화 학생들 또한 서로 함께 성장해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내년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가 된다.

● 언어의 장벽이 꿈의 장벽이 되지 않게, 학습코칭

한누리학교의 한국어 시스템은 국어과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지도 및 수준별 수업으로 매일 2시간 이상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한누리학교의 한국어 몰입교육을 위해 진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과 속 어휘〉를 통한 ‘학습코칭 프로그램’을 매일 진행하고 있다. 원하는 시간을 약속하고 매일 그날의 과제를 수행하고 확인하는 과정으로, 학생의 기질과 성격에 따라 학습의 양과 방법을 조절하고 학생들에게 성실함과 꾸준함을 강조하면서 자신 앞에 놓인 벽을 넘어서길 응원하며 코칭해주는 시간이다.

학습코칭은 2가지 이유로 시작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기숙사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학습을 지속하며 기초학력을 높이도록 돕고자 하는 이유였다. 기숙사 학생들은 가정에서의 지도가 어려우므로 그 역할을 조금이라도 보충해보고자 했다. 두 번째 이유로, 수료 후 원적교로 돌아갔을 때 모국에서 배웠던 교과서의 어휘를 한국어로 학습함과 동시에 원적교 수업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하였다. 국가별 교육의 방법이 다르고 민족별로 학력에 대한 기대가 달랐다. 대한민국에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습 정도와 방법을 아이들에게 설명해보았지만 그 반응들은 너무나 달랐다.

각양각색의 이유에 의한 입국이지만 중도입국 학생 대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언어의 벽을 최대한 낮춰 주고 싶은 마음에 아이들을 매일 만나고 응원한다.

● 큰 세상을 품는 진로 체험

한누리학교에서는 다양한 직업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해당 직업인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로비전캠프〉, 〈언어권별 직업인 초청 강연〉을 운영한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교내형으로, 올해는 교외 체험으로 운영된 〈진로비전캠프〉는 언어를 뛰어넘어 학생 개인의 직업적 흥미와 적성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인 직업에 대한 이해는 있으나, 한국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그 직업에 대해 설명하는 것조차 어려운 아이들에게 직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 직업을 선택하고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역량이 생겼으리라 확신이 들었다. 아이들에게는 언어 능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능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국어는 유창하게 못하는 학생이지만 ‘코딩랩’에 들어가서 코딩을 무리 없이 해냈고, 녹음 스튜디오에서 한국어로 ‘성우’ 직업을 체험하였다. 한국어 의사소통을 쑥스러워하는 학생이 ‘패션쇼’에서 당당한 워킹과 포즈로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수업 시간에 무기력했던 학생이 ‘자동차 디자인’을 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다문화 학생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

〈언어권별 직업인 초청 강연〉은 대한민국에 정착한 외국인 직업인들이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적응 이야기와 한국어 공부 노하우,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이주민으로서의 개척정신과 길’을 모국어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이 시간에 꽃봉오리가 해를 만날 때 활짝 피는 듯한 생명력을 보인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수업 시간이라 하고 싶은 생각을 마음껏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강연을 운영할 때 교실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재미있는 광경이 연출된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한 교실에 있기에 한누리학교에 같은 언어를 쓰는 친구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언제 어디서 왔는지 서로에게 관심을 표현한다. 또한 직업인에게 자신의 궁금증을 모국어로 마음 편히 질문하는 시간이다. 강사에 따라 모국의 게임도 진행하고 같이 그림도 그리며 생각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언어의 벽으로 눌러있던 아이들이 ‘이런 면이 있구나!’ 새삼 알게 되는 만남의 시간이다.



“I’m owner” 창업 캠프

직업이란 것은 우리가 아는 ‘명사+되다’(의사가 되다, 교사가 되다)로 되어지는 말로 규정하기에는 모호함이 존재한다. 미래사회는 한 가지 직업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에 학생들에게 직무능력 중심의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 큰 변화를 겪어 내고 이겨내는 경험을 한 중도 입국 학생들은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경험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다. 한누리 학생들은 그러한 측면에서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며 삶의 힘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일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 일 자체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부여하는 몰입을 경험하게 하고 싶어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것은 일에 대한 주인의식, 일에 대한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작년에는 창업프로그램으로 커스텀 풍선 사장님과 페이퍼 토퍼 사장님을, 올해는 캐릭터 솜사탕 사장님을 모시고 진행했다. 직접 만들어 보고 경험하며 자신만의 디자인과 기술을 적용해보고 실제 판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작년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누리학교의 한 고등학생은 방학 동안 스스로 더 많이 배우기 위해 사장님의 가게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었는데 한국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장님께 연락해서 찾아갔다고 하니 창업 캠프의 효과가 결과로 드러난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창업 캠프의 마지막 과정은 ‘배워서 남 주자’이다.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한누리 학교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받는 기쁨을, 중·고등학생은 나누는 기쁨을 경험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과 스스로 일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직접 경험이야말로 다문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인 것이다.

특별한 아이들의 진로, 난민 이야기

교실 안에 아이들을 보면서 서로 다른 그릇(역량)이 있는 것을 상상해보곤 한다. 이 학생은 ‘찾잔일까? 물컵일까? 공기일까? 접시일까?’ 상황에 따른 저마다의 행동과 말을 보면서 학생의 적성과 흥미, 그리고 능력을 보면서 혼자 상상하곤 한다.



한누리학교의 첫 진로진학상담교사로서 우리 학생들의 특수성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다. 아이들 모두가 특별한 역사를 가졌기에 일반적인 대한민국 학생들의 진로 로드맵과는 결이 달랐다.

그중에 나를 깨뜨린 한 학생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누리학교 학생 중에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거주하는 난민 학생들이 매년 있다. 한 난민 학생과 상담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의사가 되고 싶어요.”

나의 첫 생각은 보통 아랍 문화권이나 중국 문화권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이므로 ‘너도?’라는 생각과 ‘그건 어려운데...’라는 생각이 먼저 스쳤다. 이제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현실적으로 대입을 치루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5급 또는 6급, 한국학교 생활에서 우수한 고등학교 생활과 영어 성적을 보여야 하는데 외국인 전형이라 하더라도 의대 진학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했다.

다시 질문을 했다. “왜 의사가 되고 싶니?”

대부분의 아이들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라는 대답이나 “모국에서도 의사는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 이어서 되고 싶어요.”라는 대답을 생각하였으나 그 학생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다.

“제가 의사가 된다면 모국에 돌아가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셨어요.”라고 눈물을 보이며 이야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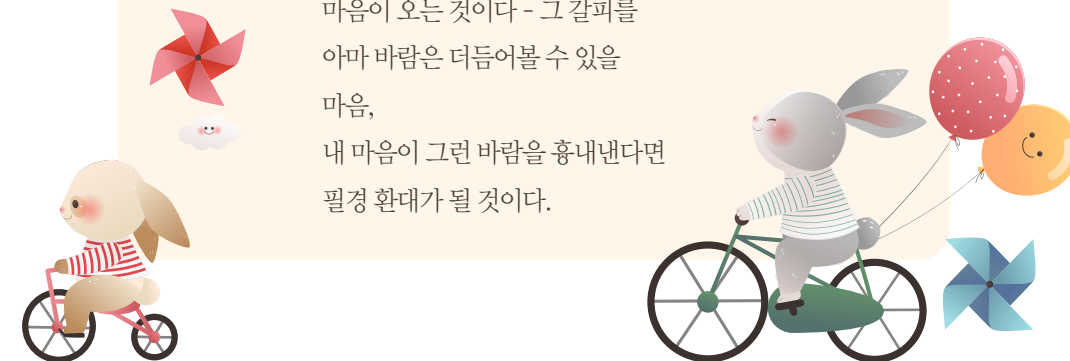
이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울며 “한국에서 의사가 되는 것은 어려워.”라는 말 대신에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 보자.”라고 이야기하며 공부 방법을 설명했다. 현실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지만 이곳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기다림과 좌절의 연속이었을 텐데 또 하나를 더하고 싶지 않았다.

그 이후 그 학생은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학생의 이주 적응도를 지켜보고 있다.

‘개별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은 국가와 민족을 달리하는 본교 학생들에게 어찌면 더 필수적이다. 어떤 국가에서 왔는지, 민족적 삶을 대하는 철학이 어떤지, 부모의 양육 태도와 기대, 학생 자신의 학력에 대한 기대치, 취업에 대한 생각이 걸어온 길에 따라 모두 다르다. 모든 인간은 특별하지만 한누리학교의 학생들은 특, 특, 특,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같이 고민해 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정현종의 ‘방문객’을 마음에 새기며 아이들을 만난다.

방문객 -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LAN-GU-Age의 LANGUAGE 학습도 괜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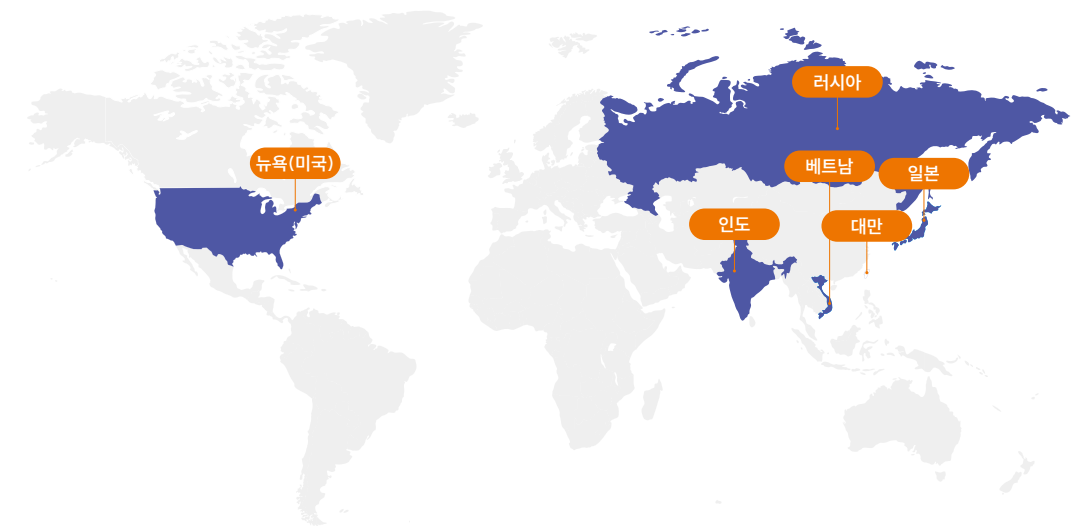
강화고등학교 교사
송민석

강화고등학교에서 인문 국제부를 3년간 맡아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오면서, 학생들의 만족도와 교사로서의 성취감, 보람 측면에서 가장 뿌듯했고 흥미를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실시간 온라인 국제교류 활동이었다.

인문 국제부라는 부서를 처음 맡으며 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나름대로 정의해 보며 가장 인문 국제부다운 활동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겠다는 나름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꼈다. 그래서 주한 영국문화원을 통해 국제교류를 할 상대 국가 학교를 찾아보거나, 이전에 컨택을 한 적이 있던 나라와도 다시 시도해서 상호 방문 활동까지 추진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천재지변이 발생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2년 넘게 움츠러들게 만든 코로나 팬데믹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은 기존의 교육 시스템과 활동 형태를 전면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그 변화는 ‘비대면’과 ‘온라인’이라는 용어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당 교사로서 계획하고 있었던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활동들을 비대면, 온라인 형태로 새롭게 계획하여 운영하였고, 국제교류 활동 또한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역동적으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는 실시간 화상 회의 플랫폼 Zoom과 실시간 협업 도구로써 Google Tools가 두 축을 이루었고 그것은 ‘랜선(LAN)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학생 클럽(Global Union) 활동 시대(Age)의 Lan·gu·age 학습’이라는 이 글의 제목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그것을 기반으로 대면만큼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큰 불편함 없이 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약 2년간의 노력은 유의미한 성과들과 나름의 노하우를 얻도록 해 주었다. 새로운 환경에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진 국제교육 활동 과정을 하나하나씩 펼쳐보며, 학생들의 활동 내용과 지도교사로서의 성찰, 그리고 몇 가지 제언을 공유하고자 한다.

● 강화고등학교와 함께 한 국제교류 상대 국가들



강화고등학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국제교육원(IEGI)의 도움을 받아 2021학년도부터 본격적인 국제교류 활동을 시작했다.

- ☑ 2021학년도 1학기~2학기: 일본, 러시아와 교류
- ☑ 2022학년도 1학기: 일본, 베트남, 인도와 교류
- ☑ 2022학년도 2학기: 대만, 미국과 교류

이 중 가장 왕성한 국제교류 활동이 이뤄졌던 나라는 인도와 대만이며, 두 나라 모두 강화고등학교 창체 동아리인 국제교류반 학생들과 함께 했다. 인도와는 2022학년도 1학기에 두 차례에 걸쳐 교류 활동을 했고, 2학기에는 현재 대만과 1차 실시간 국제교류 활동을 마친 상태이다.

모든 활동은 강화고등학교의 창체 동아리 활동 학사일정에 최대한 맞추어 운영하고자 했고, 다행히 두 나라와의 시차가 크지 않아 일정 조율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리고 각 실시간 교류 활동 전에 활동 주제 선정 협의를 하였고, 충분한 사전 준비 활동 시간을 갖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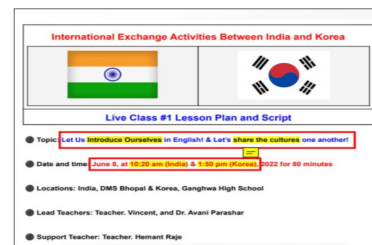
● 인도의 국제교류 활동

- ☑ 인도 교류학교: Demonstration Multipurpose School Bhopal
- ☑ 인도 교류 학생: 11명 (한국 교류 학생: 14명)
- ☑ 교류 일자: 2022. 6. 8.(1차), 2022. 6. 15.(2차)
- ☑ 교류 언어: 영어
- ☑ 교류 형태: 비대면 온라인 (Zoom 활동)
- ☑ 시차: -3시간 30분 (한국 기준)



1) 1차 실시간 국제교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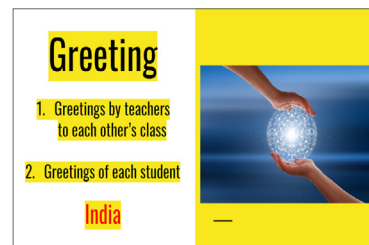
국제교류 활동을 하기에 앞서 참가 학생의 규모와 교류 주제, 일정 등을 인도의 담당 교사와 이메일 및 채팅 앱을 통해 몇 차례 협의를 했고, 협의할 사항이 많을 경우 Zoom으로 실시간 협의를 했다. 이를 통해 첫 번째 교류 활동의 주제는 자기소개와 서로의 나라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하기로 정하고 교류 일자와 방식 등을 결정했다. 중요한 사항들이 정해진 후 곧바로 교류 활동을 위한 Lesson Plan을 작성했고 효율적인 협업을 필요한 과정이기에 구글 문서, 구글 슬라이드, 구글 스프레드 시트와 같은 협업 툴을 활용해 거의 실시간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만들어 나갔다. 또한 학생들을 개별 매칭시키기 위해 각 학생들의 관심 영역이나 미래 진로 등을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해 취합하고, 이것을 공유하며 지도교사가 매칭을 해 주었다. 그리고 주제별, 단계별 활동에 필요한 슬라이드 템플릿을 제작하고 공유하여, 학생들이 1차 실시간 국제교류 활동 전 협업을 통해 자료를 함께 만들도록 지도했다.



레슨 플랜 표지



실시간 국제교류 슬라이드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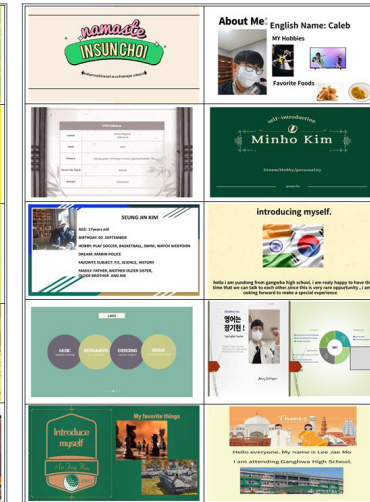


실시간 국제교류 슬라이드-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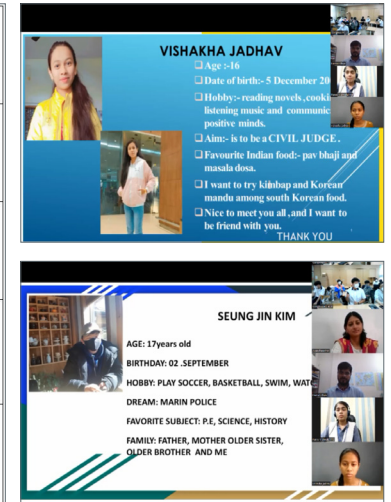
강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인도 현지 학생들에게 소개할 자신의 콘텐츠를 열심히 고민하며 만들었고 평소 인도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들도 흥미롭게 준비해 나갔다. 또한 인도의 담당 교사와 협의하여 강화고 학생과 인도의 학생들이 템플릿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서로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보다 멋진 자기소개 자료를 만들 수 있었다.



자기소개 슬라이드-인도



자기소개 슬라이드-한국



실시간 자기소개 활동

자기소개 자료 준비 활동이 끝난 후 상호 Q&A 활동을 준비하도록 했다. 자신의 파트너에게 궁금한 질문을 2가지씩 만들도록 했고, 이것을 발표 슬라이드 템플릿에 영어로 입력하도록 지도했다. 이와 동시에 인도 학생들도 강화고 학생들에게 궁금한 점을 실시간으로 같은 템플릿에 입력하도록 하여 두 나라 학생들이 서로의 질문을 미리 확인하고 자신이 답할 내용을 성심성의껏 준비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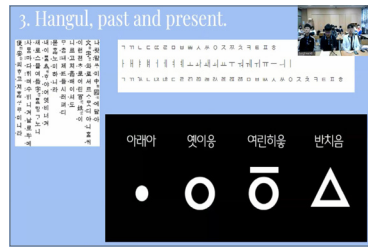
질문 내용 (한국 ▶ 인도)	질문 내용 (인도 ▶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Who is your favorite Indian celebrity? Who do you admire the most among people from India? Why do you do yoga and meditation in India? What is a symbol of India? What does the flag of India mean? How is the COVID-19 going in India? Is Korean culture famous in India? What is your traditional culture? What is the typical Indian food? What would you like to do when you come to Korea? What is your favorite place in India? Who is the most popular Korean idol in India these days? What kind of transportation does India usually use? What are the traditional games of India? What's the meaning of the red dot on India woman's forehead? Have you ever been to a mango festival? How many times do you eat a curry in a week? 	<ul style="list-style-type: none"> What do you like most about your school system? Name some ways of entertainment in South Korean culture. What are the cultural festival celebrated in South Korea? Do you have any eating habits that are specific to your culture? Describe the most important (or most celebrated) holiday of your culture. Tell us some special ingredients of your cuisine. What do you do help your parents at home? What information do you have about India in your textbooks or in general? Is there any religion system like India? What type of sports do you play in school or at home? When do you have your vacation and how do you spend it? What can you tell us about your culture and heritage? Can you tell me something about the statue of Sejong the great? What type of jobs do you prefer?

2) 2차 실시간 국제교류 활동

두 번째 교류 활동의 주제는 한국과 인도의 문화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것이었고, 이 또한 사전 준비 활동을 하고 참여토록 했다. 학생들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테마 카테고리도 한글, 관광 명소, 전통 음식, 영화, 문화유산, 전통 놀이를 선정하였고, 모둠 형태로 각 주제별 발표 자료와 발표 내용을 준비했다. 그리고 인도 학생들은 종교, 관광 명소, 축제, 전통 요리, 음악, 문화유산, 의상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를 준비하였다. 학생들은 2차 실시간 국제교류 활동에서 주제의 내용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았으며 기념사진 촬영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문화소개 슬라이드 표지



한국 문화소개 슬라이드 1



한국 문화소개 슬라이드 2



인도 문화소개 슬라이드 1



인도 문화소개 슬라이드 2



기념사진 촬영

● 대만과의 국제교류 활동

- ☑ 대만 교류학교: National Tainan Chia Chi Senior High School
- ☑ 인도 교류 학생: 13명 (한국 교류 학생: 14명)
- ☑ 교류 일자: 2022. 9. 28.(1차)
- ☑ 교류 언어: 영어
- ☑ 교류 형태: 비대면 온라인 (Zoom 활용)
- ☑ 시차: -1시간 (한국 기준)

1) 1차 실시간 국제교류 활동

강화고등학교 국제교류반 학생들이 가능한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인도, 대만과의 국제교류 매칭을 올해 초 완료하여 인도와의 국제교류를 1학기에, 대만과의 국제교류는 2학기에 시작하는 것으로 각 나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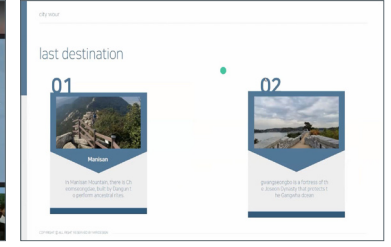
현지 학교 담당 교사와 협의하였다. 사실 1학기에 두 차례에 걸쳐 인도와의 국제교류 활동을 마친 후 인도 담당 교사로부터 2학기에도 연장해서 교류 활동을 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으나 2학기에는 대만과의 국제교류가 약속되어 있었고, 본교 학생들 또한 새로운 나라와의 국제교류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대만 현지 학교 담당 교사와 이메일 및 채팅 앱을 통해 몇 차례 협의 사항을 주고 받은 후, 보다 자세한 협의는 필요할 때마다 Zoom을 통해 이뤄졌다. 한국과 대만의 시차는 1시간이라서 교류 일정이나 협의 일정을 결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고, 대만 학교의 경우 이미 많은 나라와 국제교류를 왕성하게 해 오고 있어서 교사 입장에서 보다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



대만 교사와의 사전 협의



대만 학생 자기소개 슬라이드



강화군 명소 소개 슬라이드



실시간 국제교류-소회의실 A



실시간 국제교류-소회의실 B



기념사진 촬영

앞서 인도와의 교류 활동과 국제교류반 학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대만과의 1차 교류 활동은 소회의실을 활용한 모둠별 국제 교류 활동을 계획하여 학생들이 영어에 노출되는 기회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첫 만남이니만큼 서로 친숙해지는 시간을 갖고자 간단한 자기소개 및 학교생활, 인천 명소, 맛집, 음악을 주제로 한 내용을 개인별로 준비하여 각 소회의실 안에서 공유하도록 활동을 구성했다. 모든 준비와 공유 과정은 1학과 동일하게 구글 문서, 구글 슬라이드, 구글 스프레드 시트와 같은 협업 툴을 활용해 거의 실시간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했고, 학생들은 한 번 이상의 경험이 있었기에 더욱 일상불란하게 자신의 발표 자료를 제작해 나갔다.



대만 학생들과의 1차 실시간 국제교류 활동을 마친 후 강화고 국제교류반 학생들은 활동 후 평가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점과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국제교류 활동 개선점과 요구사항

① 2개 이상의 교류활동 공간이 필요하다.

각 학생별로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여 Zoom 소회의실에서 활동을 하는 형태였기에 학교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랜선 기반의 컴퓨터실을 활용했다. 물론 여러 컴퓨터의 인터넷 동시 접속에도 인터넷은 안정적이었으나, 문제는 같은 공간 안에 14명의 학생들이 있어서 모뎀 간 발표 소리가 상호 소음으로 작용하는 것이었다. 이에 다음 활동 시에는 2개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② 대만 학생들의 사전 준비가 미비했다.

대만 교사와 사전 협의를 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강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보여진 대만 학생들의 사전 준비 콘텐츠는 미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았다. 이에 교사는 학생들이 해야 할 과업과 수행 기간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며, 이러한 전 과정을 담당 교사 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③ 소회의실에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 소회의실에서 전체적인 과정을 진행할 리더를 사전에 선정해 두었다. 하지만 서로 낯선 이유에서인지 학생 개인 역량 차이인지 일부 소회의실에서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은 모뎀이 있었고, 차후 활동 시에는 리더의 역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④ 1:1 형태의 국제교류를 해 보고 싶다.

인도와외 국제교류는 전체 Whole Class 형태의 교류였다면, 대만과의 1차 교류는 Group 형태였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한 학생들은 Individual activity를 원했고, 그것은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증대된 흥미와 적극성의 반영이었다. 모뎀 단위도 아닌 개인별 교류 활동이라면 각자 준비해야 할 콘텐츠가 더 많아져 부담이 될 수도 있을텐데 학생들은 그마저도 충분히 감당할 만큼 국제교류 활동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았다.

위의 내용들을 반영하여 국제교류반 학생들과 2차 교류 활동을 계획하면서, 두 번째 활동의 주제도 신중히 생각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흥미를 더욱 배가시키고 보다 쉽게 많은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할 수 있으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또한 고려하여 두 나라 학생들이 갖고 있는 희망 진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탐구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정했고, 사전활동으로 각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이야기를 진지하게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2차 실시간 교류 활동은 11월 30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전의 활동보다 더 나아진 환경 속에서 대만 학생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나옴

약 2년 가까이 국제교류 활동을 꾸려 오며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것을 통해 경험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고, 그로부터 얻어낸 노하우를 기반으로 더 발전된 활동을 구상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 학생들의 피드백은 업무 담당 교사로서 한 단계 더 진화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동안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열정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과, 국제교류 활동을 운영하며 얻은 교사 나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글을 마친다.

인터뷰

Q&A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느꼈던 활동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학생 A: 이OO

저는 올해 1학기에 창체동아리 국제교류반에서 인도와 국제교류를 하였습니다. 인도와 국제교류를 하며 가장 아쉬웠던 점은 Zoom을 통해 온라인 교류를 하게되어 보다 왕성하게 서로 소통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 학생들의 영어 발음이 이해하기 어려워 소통이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반면 가장 좋았던 것은, 문화교류를 통해서 인도 학생들의 삶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의 문화를 인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알리는 것이 좋은 경험이었다는 점입니다.

학생 B: 김OO

저는 올해 1학기에 베트남 학생들과 국제교류 활동을 했습니다. 그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주제를 통해 다른 나라 학생들과 그 주제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참여 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들로 인해 공동 프로젝트 수행시 다른 학생들의 부담감이 커져 다소 힘들었다는 것이었고, 앞으로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C: 정OO

저는 창체동아리 국제교류반에서 올해 1학기에 인도와 국제교류 활동을 했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국제교류가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Zoom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국제교류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인도와의 국제교류 활동을 하면서 느낀 장점은 인도와 한국의 생태, 문화, 환경, 역사를 서로에게 알려주며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진정한 국제교류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요. 단점으로는, 동아리원 전체가 인도 학생들과 웹캠으로 만나는 형태여서 원활한 쌍방향 소통이 부족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국제교류 활동에서는 1대1 또는 2대2 형태의 교류 활동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D: 하OO

저는 작년과 올해 1학기에 일본 학생들과의 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장 좋았던 점은 일본어 원어민 선생님과 일본 현지 학생들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만나면서 일본어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과 공동 프로젝트 활동에서 강화 지역의 생태환경 사진을 찍어 일본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일본 학생들도 강에 마스크가 버려져 있는 사진을 찍어 저희에게 보여주며 두 나라의 생태환경 모습을 공유하며 서로 공감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온라인으로 교류 활동을 하면서 직접 대면하며 활동을 했다면 더욱 흥미롭게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에요.

경험을 통한 제언

1. 온라인 플랫폼과 실시간 협업 툴 활용을 위한 안정된 시스템구축 및 사전 점검과 활용법 숙지

아직까지는 비대면으로 교류 활동이 이뤄지므로 안정된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 구축하고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물리적 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는 참가자들이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실시간 협업할 수 있기 위해 구글이 제공하는 다양한 툴을 원활히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필요하다. 앞으로 대면 교류 활동이 가능해지고 더욱 확대가 되더라도 비대면 교류 활동은 부가적 활동으로 여전히 활용될 것이라고 예상되기에 이는 앞으로도 중요한 필수 준비사항이다.

2. 공동 프로젝트 주제의 다양화

일반적으로 국제교류 활동 시 주로 다뤄지는 주제는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글로벌 이슈일 것이다. 본교의 경우, 평소 학기 중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 주제에 대해 여러 차례 다뤘기 때문에 학생들은 다소 식상하거나 지루하게 느껴, 국제교류 활동 주제 선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았고, 그중 가장 선호되는 것을 골라 교류 국가 담당 교사와 협의하여 교류 활동 플랜에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3.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의 시작과 끝을 매뉴얼화

학년도가 바뀌면 학교 업무 담당 교사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 담당 교사가 바뀌더라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업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의 전반적인 과정을 매뉴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잘 만들어진 시교육청 국제교류 활동 매뉴얼이 있긴 하지만, 단위 학교의 실정에 최적화된 매뉴얼이 있고 다음 담당 교사가 그 매뉴얼을 이어받아 필요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를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가능한 많은 나라와 교류를 하고자 노력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짜놓은 교육의 장(場)에서 학생들이 저마다 가진 자신만의 결에 따라 나름의 경험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며 교사로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이것은 더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물론 지치는 때도 있고, 실망스러운 활동을 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더 재미있게, 멋지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다. 앞으로 학생들이 소망하는 만큼 대면 교류 활동이 빠른 시일 안에 재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더욱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가 펼쳐질 미래를 상상하면 설렘이 먼저 다가온다. 그 설렘을 세심하게 담아 앞으로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알찬 경험의 기회를 계속 제공하고 싶다.



결 따라 성장하는 은하수학교

청소년자치학교 은하수 교사
심은영

“해야 하는 거 말고, 하고 싶은 거 해!”

스로카의 이야기

스로카(별칭)는 올해 고3이 된 청소년이다. 원래부터 주제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배우거나 벌이는 것을 좋아하는 스로카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내내 진로 고민을 했지만 답을 찾기가 어려웠다. 자신도 모르게 진로에 대한 정의를 입시라 여기고, 수업과 동아리와 체험활동을 온통 입시에만 포커스를 맞추며, 가장 나답게 오늘을 사는 것을 끊임없이 유보하는 것이 학교생활인 것 같았다.

스로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도 많았지만 그것은 더 어려웠다. 학교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은 생기부에 기록될 만한 진로 스펙이 아니면 스로카의 엉뚱(?)한 제안을 아무도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놀러왔다가 운명처럼 은하수 3기 모집 현수막을 보게 되었고,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기획하고 함께 실현한다는 점에 끌려 당장 신청했다.

스로카는 은하수에 와서 비로소 대화다운 대화를 해보았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머릿속에서 굴리지만 하던 생각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고, 모두가 스로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었다. 특히 스로카는 수많은 아이디어와 제안이 쏟아져 나왔던 프로젝트 기획 워크숍을 잊지 못한다. 미래행성⁰¹에 속해 있던 스로카는 ‘도시농부’, ‘프라이팬을 든 과학자’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패들렛에 올라온 다른 친구들의 아이디어들을 보니 하나 같이 흥미진진해서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게 괴로울 정도였다. 심지어 다른 행성의 프로젝트 아이디어들 중에도 스로카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정말 많았다.

스로카가 제안한 두 아이디어 중 ‘도시농부’는 오픈스페이스에서 몇몇 청소년들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최소 인원을 채우려면 두 명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기후환경프로젝트’ 제안자들과 아이디어를 통합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로 했다.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가 ‘비질레스(Visiles)’⁰²이다. 비질레스팀은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부추, 바질 등의 농작물들을 화분에 심어서 키워보고, 수확한 것으로 요리까지 만들어 보았다.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시의 골목길에 조금이나마 초록 숨구멍을 만들기 위해 게릴라가드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꼭 지키고자 했던 원칙은 되도록 무언가를 사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일이 또 다른 쓰레기와 탄소를 만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버려진 화분들을 주워 와서 농작물을 심었고, 게릴라가드닝에 필요한 화초도 남동구 원예단지를 돌며 상품가치가 없는 것들을 기부 받아 가져왔다.

——

“처음에 계획한 대로 된 것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계속 생겨났거든요. 그때마다 다 같이 모여 지혜를 모으고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서 어떻게든 프로젝트를 이어왔어요. 은하수에서 다양한 도전을 하다 보니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일도 어렵지 않게 시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 공동체의 힘을 합칠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패배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전에는 뭐든 혼자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은하수 프로젝트와 청소년자치회에 참여하면서 모두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고, 협력 그 자체를 목표로 일을 해나가는 것의 가치도 알게 되었어요.”

스로카

——

01 ‘행성’은 은하수학교 청소년들이 이름 지은 것으로, ‘관심 분야’를 일컫는다. 은하수학교는 올림행성(공연예술 분야), 르네행성(인문·사회 분야), 미래행성(과학·환경 분야), 상상행성(미디어창작 분야), 아라행성(제작·창작 분야), 총 5개의 행성이 있다.

02 Visiles는 라틴어로 ‘자경단’이라는 뜻이다.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한다는 의미를 담아 이름지었다.

몇 주 전 서울에서 열린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하고 온 스로카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이런 활동을 풀뿌리 모임의 형태로 이어가려고 한다.

●● ‘학교 밖 학교’, 혹은 ‘학교 너머 학교’

은하수학교는 교육법제상 존재하는 정식 학교가 아닌, 방과 후에 운영되는 청소년⁰³ 자치배움터⁰⁴이다. 인천청소년자치학교 ‘은하수’는 학교에 대한 즐거운 상상에서 시작되었다. 정답과 경쟁이 없는 학교, 나만의 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배우는 학교, 모두가 학생이 되고 모두가 선생님이 되는 학교, 만들어진 학교 말고 만들고 싶은 진짜 학교!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싶은 청소년들과 그들의 동행자가 되어 줄 어른들이 School Creater(청소년자치학교 추진단)로 자원해 모여들었다. 2020년 6월부터 한 달간 이어진 추진단 워크숍을 통해, 학교 이름, 핵심가치, 비전, 운영원리 등 학교의 토대를 만들었다. ‘은하수’라는 학교 이름에는 은하수를 만든 이들의 바람과 다짐이 담겨있다. 은하수는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모두 저마다의 빛을 지닌 별이고, 그 별들은 협력과 연대로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가치⁰⁵ 빛나며 성장하는 은하수학교’라는 학교 비전이나, 그 비전을 슬로건으로 만든 ‘새로운 상상, 따뜻한 연대, 모두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은하수학교’에도 성적이 아닌 ‘성장’을, 결과가 아닌 ‘과정’을, 경쟁이 아닌 ‘연대’를 지향하는 은하수학교의 철학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은하수학교는 3월의 새출발 워크숍부터 11월의 한해살이 성장나눔회까지 일 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모든 과정은 청소년들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강좌를 개설하고 학생을 모으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을 먼저 모집한 후 은하수학교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배우고 싶은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그래서 매년 만들어지는 프로젝트가 다를 수밖에 없다. 학년 구분은 따로 두지 않는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학년제로 운영하는데, 나이에 따른 위계가 생기지 않도록 이름 대신 별칭⁰⁶을 사용한다.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

03 은하수학교의 모집 대상은 중·고등학교 연령기의 모든 청소년이다. 학교를 다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라고 하지 않고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04 은하수에서는 청소년 자치배움터에 대해 “청소년이 삶을 기반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함께 만들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학습하는 배움터”라고 정의한다.

05 ‘가치’는 동음이의어로서 ‘같이’와 ‘가치’의 두 가지 뜻을 함께 담으려고 했다.

06 별칭은 은하수를 신청할 때부터 스스로 짓는다. 자신의 특징을 담아 짓거나, 불리고 싶은 별칭으로 자유롭게 짓는다. 은하수에서 서로를 부를 때는 별칭 뒤에 ‘님’을 붙이고 존대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길잡이교사와 청소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각 프로젝트의 팀장은 은하수 청소년자치회에 소속된다. 물론 원하는 청소년은 모두 청소년자치회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다. 올해 은하수 청소년자치회에는 40명의 청소년이 신청해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자치회는 매주 1회 2시간의 회의를 하는데, 은하수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안건 협의나 프로젝트 활동 상황 공유, 각종 자치행사의 기획과 추진을 맡고 있는 은하수학교의 핵심 자치 조직이다. 청소년자치회 외에도 은하수에는 길잡이 교사들의 협의체인 길잡이교사회, 은하수 최고 의결기구인 은하수자치회가 있다. 특히 은하수자치회는 청소년이 8할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표도 청소년이 맡는다는 규정을 두어, 은하수가 ‘청소년이 주인인 학교’임을 분명히 했다.

● 은하수를 움직여가는 두 가지 힘, 프로젝트와 서클프로세스

은하수 청소년들은 일 년간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누구나 하고 싶은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고, 관심 있는 청소년들과 길잡이교사가 모여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기획한 후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활동해나간다. 이 청소년주도 프로젝트가 은하수의 주된 교육과정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교사가 활동 주제를 정하고 팀까지 짜주며 산출물을 평가하는 일반 학교의 프로젝트와는 달리, 은하수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기획, 실행, 평가를 스스로 이끌어간다. 이 과정에서 길잡이교사는 동행자이자 조력자로서 협력한다.

은하수에서 프로젝트는 배움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늘 강조한다. 프로젝트 활동을 열심히 해서 특정 지식과 기능을 숙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주도성, 공동체, 협력, 갈등 해결, 소통, 시민성 등을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하수에서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다. 실패 속에서도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은하수 프로젝트가 일반 학교의 프로젝트와 다른 점은 ‘공익화’를 추구한다는 것에도 있다. 은하수의 모든 프로젝트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공익화를 고민하는데, 자치란 결국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인간은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배워야 하지만 혼자서는 살 수 없기에 다른 사람과 협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는 무수히 많은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나의 자유와 행복이 중요하다면 내 주위에 그런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지를 살필 줄 아는 시민의식을 경험하고 배우는 곳이 바로 자치배움터이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 은하수 청소년들이 정한 프로젝트 대주제 “은하수, 우리의 별빛을 모아 세상을 밝히자!”에는 배움의 공익화를 고민한 은하수 청소년들의 소망이 잘 담겨있다.

은하수학교는 프로젝트든 자치회의든 모든 공간에서 서클프로세스를 활용해 소통하고 대화한다. 서클은 은하수가 지향하는 가치를 내면화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장치라고 생각해 처음부터 시도했고 지금은 거의 자리를 잡았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은하수학교에 참여하며 가장 먼저 느끼는 차이점으로 ‘안전한 느낌’, ‘존중받는 느낌’을 꼽곤 하는데, 이는 서클과 매우 관련이 깊다. 서클은 서로의 감정과 욕구를 살펴봐 주고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평가하지 않으며, 소수가 발언을 독점하거나

다수결로 쉽게 결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은하수학교는 서클프로세스를 통해 모두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 자체를 배움의 공간으로 만든다.

● 결따라 성장해가는 은하수 청소년

‘원’(별칭)은 고등학교에 올라와 한동안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다.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았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걸 왜 하는 걸까?’라는 생각으로 고민이 많아 1학년을 어영부영 보냈다. 더 이상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뭐라도 찾아볼까 하던 중, 학교 가정통신문으로 은하수학교 모집 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은하수학교라면 내가 다시 나다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바로 신청하게 되었다.

원이 활동하고 있는 ‘은하수연구소’ 프로젝트는 은하수학교를 비롯해 전국의 청소년자치배움터를 탐방하고 청소년자치와 미래학교에 대한 발전 방향을 탐색해 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우선 팀원들끼리 수차례 토론을 통해 ‘청소년 자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은하수학교 구성원들은 은하수학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의정부 몽실학교, 군산의 자몽학교, 서울의 다가치학교 등을 방문해 운영지원팀 교사들을 인터뷰하는 것은 물론 그곳 청소년들과 토로(吐露)회를 가지며 때로는 불편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솔직한 얘기들을 나누었다. 현재 은하수연구소팀은 지난 일 년간의 활동보고서를 책으로 발간하기 위해 한창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원은 청소년자치회에도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다. 매주 열리는 청자(청소년자치회) 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한다. 원은 은하수에 와서 처음으로 서클을 경험했는데,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말할 수 있고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는 서클 문화 덕분에 다소 내성적인 편인 원도 자기 생각을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생각이 정리가 잘 안되거나 떠오르지 않을 때에도 ‘패스(발언을 유보하거나 넘기는 것)’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견을 꼭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편한 마음으로 청자회의나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원은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 수많은 주제로 깊은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학교와 학원과 집을 오가며 쳇바퀴 같은 삶을 살던 저에게 은하수학교는 사회생활을 배우는 곳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방법, 낯선 사람들과 팀을 이루고 유대감을 만들어가는 방법, 진실한 언어로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며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방법 같은, 어디에서도 배우기 힘든 것들을 여기서 배웠어요. 특히 예전의 저는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제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이 없었어요. 부정적인 감정은 더더욱 그랬어요.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내가 먼저 상대방의 요구를 맞춰주는 것으로 그 순간을 넘겼었는데, 언제부턴가 갈등을 마주하고 해결하게 되었어요.”

원

은하수 활동 때문에 원은 하루하루를 너무나 바쁘게 보내고 있다. 원이뿐만 아니라, 학교와 은하수 활동을 병행하는 은하수 청소년 대부분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 황금 같은 토요일에 멀고 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⁰⁷ 까지 은하수를 찾아온다. 왜일까? 그것에 대한 힌트가 나는 아래의 글귀에 있다고 생각한다.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헤르만 헤세, ‘데미안’

⁰⁷ 은하수학교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내에 있다.

누구보다 치열했지만 행복했던 나의 고등학교 시절

목련여자고등학교 졸업생
김서진



안녕하세요.

목련여자고등학교 16회 졸업생이자, 인하대학교 의예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서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입시를 준비하느라

힘들게 보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나서 돌아보니 그 과정들이 모두 뜻깊고, 소중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과 함께,

짧지만 길었던 고등학교 3년간의 과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보게 될 후배님들과 수험생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된 동기

현재 의예과를 재학 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의사였어?’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의사가 꿈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입학 당시에는 모호하게 연구원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이과 계열 학생들과 비슷하게 ‘생명공학 연구원’이 꿈이었고, 고등학교 2, 3학년을 보내며 생명공학 연구원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생화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화학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생화학과’, ‘약학대학’, ‘의과대학’ 등의 학과에서 관련 학문을 깊이 있게 배운다고 합니다. 특히 의과대학에서는 생화학을 포함하는 학문을 ‘기초의학’이라 부릅니다. 이 기초의학에는 세포생물학, 유전학, 발생학, 미생물학 등 다양한 학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화학 뿐만 아니라 해부학, 면역학, 약리학 등을 다룰 수 있는 연구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의과대학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처음에 의과대학에 진학한 동기는 막연히 내가 하고 싶었던 ‘생화학 연구원’을 하기 위해서였지만, 지금은 연구원이라는 직업 외에도 졸업 후 임상 의사, 기초의학자, 의학전문기자 등 여러 가지 직업들에 대해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 대학 생활의 만족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어 약 2년간 온라인 클래스로 원격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고등학생은 대학이라는 목표를 위해 공부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학교생활을 통해 다양한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온라인 수업 때문에 친구들을 많이 사귀지 못했다는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올해 대학교 1학년 1학기에도 전공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지만, 2학기부터 전면 대면 수업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다양한 학과의 학우들과 친해질 수 있게 되어 만족스럽습니다. 짧은 몇 개월 동안 대학을 다니며 제 대학 생활을 평가해보면 5점 만점에 5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큼 대학교 역시 집과 가깝기 때문에 통학이 용이하고, 무엇보다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싶었던 과목들을 심도 있게 배우게 되어 더욱 재밌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과 1, 2학년 과정 동안은 전공과목 보다는 다양한 교양과목을 듣도록 되어 있어서(다른 대학교 의과대학도 대부분 예과 1, 2학년 때에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타과 학생들과도 교류하며 다양한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른 과 학생들과 똑같이 중간, 기말고사만 보는 예과는 의학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2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해볼 수 있어서 대학교 1학년을 즐기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진로 계획(향후 계획)

간단하게 의과대학 커리큘럼에 대해 소개를 하면,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의예과 기준으로 예과 2년 동안은 인체 생물학, 인체 생화학, 인체의 대사, 세포의 구조와 기능, 의료통계학, 의료 윤리 등과 관련된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본과 4년 역시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는데, 본과 1, 2학년은 기초의학부터 임상의학까지 학문 위주로 공부하게 되며 본과 3, 4학년은 흔히 PK라고 칭하는 학생 의사 실습을 하게 되어 병원이나 지역 의료 시설로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의과대학의 경우, 의학과 4학년 때 국가고시(실기, 필기) 시험을 거쳐 의사 면허를 발급받게 되고 졸업과 동시에 인턴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인턴 때는 여러 과를 돌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전문의 시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공과를 정하게 됩니다. 3~4년 동안의 레지던트 수련을 마치면 개업을 하거나, 펠로우를 하는 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 전공의 과정을 밟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고등학생 때의 꿈을 바탕으로 제 삶을 돌아보면, 기초 의학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과 1학년에 재학 중이기에 기초 의학을 깊게 공부해보지도 못했고, 임상 의학의 학문도 배워보지 못하였으며 실습 또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련의 과정을 밟고 나서 어떤 학문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해볼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 고등학교 생활

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인하대학교 의예과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작년 지원할 당시까지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더불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저를 잘 나타내지 못한 부분도 자기소개서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 만큼 성적과 더불어 생활기록부도 저만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해왔기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고등학교 생활을 했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공부 습관** 온라인 클래스 수업을 더 많이 진행했던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 습관을 잡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1학년 때에 비해 성적도 떨어졌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흔들렸던 시기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기하'와 같은 과학탐구나 수학 선택과목에서 자연 계열을 희망하는 소수의 친구들과 경쟁하다 보니, 공부 계획표를 짜고 실천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제가 고등학교 2, 3학년 때 사용한 계획표의 모습입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오늘 목표한 분량의 80%를 끝내기 위해 계획한 것을 하나씩 지워가며 사용했습니다.

흔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는 습관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저에게는 이러한 습관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는 밤에 계획한 것을 다 하고 자는 것이 공부 효율이 높은 것 같아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계획한 것은 다 끝내고 잤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수면 패턴을 찾는 것도 공부 습관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수업 시간에는 자거나 졸지 않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판서를 빠짐없이 놓치지 않고 필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교과서 필기 예시입니다. 더불어 시험 기간에는 흔히 말하는 '백지 복습'으로 공부했습니다. 백지 복습을 통해 책을 덮고 외운 내용들을 쓴 뒤, 빠뜨리거나 틀린 부분을 채워 넣으며 공부하는 방식으로 학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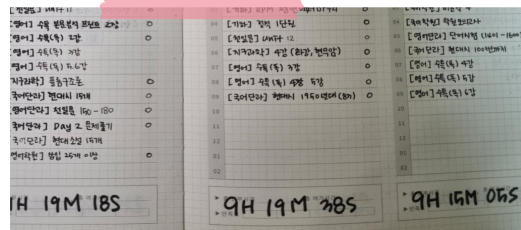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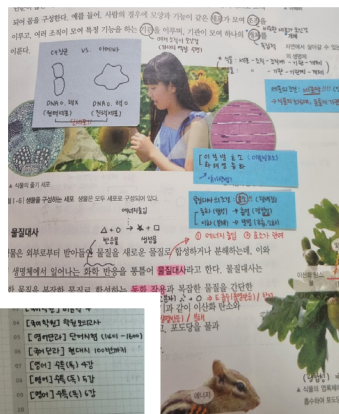
■ **활동** 무엇보다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활동들을 몇 가지 써보고자 합니다.

① **온새미 심화과학탐구교실** 옥련여자고등학교의 경우 과학 중점학교가 아닌 일반계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탐구 교실을 통해 생명과학, 화학 교과 관련 심화 기기를 활용한 실험들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DNA 추출과 전기영동 실험, DNA chip, TLC 크로마토그래피, Spectrophotometer 정량 실험, 수질 오염 실험 등 다양한 주제의 과학탐구 실험을 통해 생명공학 연구원에 대한 포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② **창의 메이커 스쿨** 흔히 생명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생명과학 교과와 관련된 활동 위주로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인 만큼 아두이노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창의 메이커 스쿨'을 통해 아두이노 운영 체계와 전자부품의 이해, 센서의 활용, 블록 코딩 등을 학습하며 아두이노 메이커 능력을 함양한 뒤,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작품을 설계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당시 환경동아리를 하면서 미세먼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공기 청정기가 돌아갈 수 있는 사물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는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③ **과학동아리 활동** 1학년 때에는 과학동아리인 '루시페린'에서 활동했습니다. 루시페린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모두 다루는 동아리라고 알고 지원하게 되었으나, 1학년 때 활동을 하면서 주로 생명과학과 화학 관련 실험을 다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오염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고민이 많아지던 2학년 때에는 '초록발걸음'이라는 환경동아리로 옮기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 활동이나 탐구실험을 직접 설계하여 진행했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학교 둘레에서 아파트 건설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공사의 진행 상황이 학교의 미세먼지 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였습니다. 데이터 추출을 위해 드론을 띄워 공사 현장을 촬영하고, 교내 미세먼지 수치와 거주지 미세먼지 수치를 매일 측정하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미세먼지와 건강을 연결시켜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호흡기 관련 질환들에 대해 알아보고, 학우들에게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건강을 위한 팁을 알리는 캠페인까지 확장하는 의미있는 활동이었습니다.

④ **교외 활동** 교외 활동으로는 다양한 학술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비록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는 없었지만 전통적인 과학 탐구활동 대회인 R&E 대회, 인천광역시 과학전람회, 인천/전국 과학발명품 대회 등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교외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학교내 활동에서는 배울 수 없는 더 넓고 깊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천과 전국의 다양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우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그들이 탐구한 여러 주제에 대해 새롭게 배우고 동료 의식과 도전감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약 20년 동안 살면서, 대학교를 진학하기까지의 고등학교 3년간 모두들 치열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학교를 졸업하며 가야 할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부터, 고등학교 탐구과목의 선택 등 다양한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한 선택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정말 힘든 점도 많았고 앞으로 이보다 더 힘들 시기가 있을까 싶었지만, 그 과정들을 지금 돌아보면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의 명언 중에 '허송세월하며 할 일 없는 사람은 악(惡)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기울어진다'라는 말을 고등학교 3년 내내 책상에 붙여놓고 아침에 한 번씩 읽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똑같은 시간을 통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짧지만 긴 고등학교 3년 역시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누구보다도 후회 없이 살아가자는 것이 고등학교 3년간의 제 다짐이자 목표였습니다.

모든 후배님들도 고등학교 3년을 후회 없이 소중하게 보내셔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학생, 자신의 길을 찾다

학생참여위원회 부위원장
손석민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3기 인천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부위원장, 강화고등학교 2학년 손석민이라고 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비전인 학생성공시대가,
학생 저마다 결대로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공이, 모든 학생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에 학생으로서 안심이 됩니다.
아울러 제가 찾은 결 역시 우리 인천교육을 통해 응원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듭니다.
이러한 기대와 함께 제가 찾은 저의 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경제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경제 이슈를 알아보기 위해 매일 뉴스를 챙겨 봅니다. 세계경제 역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세계 여러 이슈를 알아보고 그 여파들을 경제와 연관 지어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사건들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각각의 사건들은 연쇄적인 작용을 일으켜 더 큰 경제에 더 큰 효과를 주기도 하며, 때로는 특정한 대책들이 전혀 상관 없다시피 보이는 분야에서 일어난 사건의 해결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라는 분야는 너무나도 방대하기에 거시 경제를 두루 알기는 쉽지 않아보였습니다. 하여 저는 여러 가지 경제 분야 중에서도 지역경제 분야, 특히 지역경제 분야 사이에서도 요즘 대두가 되는 지역 불균형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활동 중 대부분은 지역 경제에 대한 활동이고 특히나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는 걸 중점으로 다루는 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제게 큰 영향을 주었던 세 가지 활동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활동은 교내 경제대회인 지역브랜드 경진대회에 나간 것이었습니다. 대회의 취지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 사업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회의 핵심이 지역의 발전이며 지역 불균형의 해결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지원만 하는 ‘기존에 존재했던 형식적이고 효율이 떨어지는 방식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자체에서 직접 나서서 지역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고 시민들의 호응을 유도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지자체가 모회사가 되어서 지역의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거쳐 강화의 특징인 지역의 특산물들을 이용하는 6차 산업체를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수평적 구조를 통해서 개인 사업자 간의 경쟁보다는 서로 지원해서 상생하는 방안을 떠올리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즉 지자체는 모회사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 상인과 농민 등 1, 2차 산업 종사자를 연결하여 안정적인 내수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홍보와 다른 지역으로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로 저는 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은 했으나, 야심찬 제 계획에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분명히 가치가 있지만 원석일 뿐이고 아직 갈 길이 멀구나.’ 하지만 원석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가공의 과정을 거쳐 보석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희망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강화고등학교의 특색 활동인 ‘청람제’란 활동입니다. 청람제란 매년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관해 탐구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직접

수업하는 활동입니다. 저는 청람제에서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수평적 콘체른 형태의 지자체 공동기업”이란 주제로 탐구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역브랜드 경진대회에서 갖게 된 의문점과 깨달은 결점들을 보완하며 아이디어들을 조금 더 구체화 시키던 와중 이처럼 좋은 기회를 만나 제가 여태껏 탐구 하던 활동을 학우들에게 발표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같이 발표하는 친구는 저에게 ‘결국 지역 불균형 해결을 위해서는 탈중양화를 해야한다는 것인데 너의 아이디어에는 탈중양화에 대한 의견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며 제 아이디어에 살을 더해주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의견을 공유하며 위와 같은 결점들을 찾아 아이디어를 보완해 나아갔고, 보완된 아이디어를 친구들에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며 제가 예상하지 못한 허점들을 발견하고, 여러 친구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저만의 생각을 우리들의 아이디어로 바꾸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활동은 경제 탐구 동아리에서 자신만의 주제를 정한 후 경제 이슈 탐구를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길어져만 가는 노령화, 심해져만 가는 지역 불균형, 강화군의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제목만 들어서도 어느 정도 감이 오실 텐데요. 제가 사는 강화는 대부분의 인천 지역과는 다르게 농촌지역이 많고, 그로 인해서 농사를 지으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임에도 고령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시의 발전으로 역류 현상이 심해지면서 강화지역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졌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화군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현 정책들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을 스스로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강화군의 군의원님과 인터뷰를 계획하여 현 강화군의 경제 활성화 정책들과 문제점, 제가 직접 제안하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등 여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현 강화의 경제 정책은 공공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과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강화에 있는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뜨거운 햇빛을 가리면서 동시에 환경친화적 발전을 실천하자는 정책 또한 제안했습니다.

이쯤 되면 제 아이디어인 “지자체 주도의 기업체로 인한 내수 활성화”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아이디어의 지자체 주도의 기업체는 기본적으로 수평적 콘체른의 기업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회사를 지자체가 맡고 2세 회사, 3세 회사를 지역의 농민이나 개인 사업체가 맡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업들과는 다르게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내수에서 흐르는 형태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강화의 특성상 엄청난 다양한 특산물들을 가지고 있고, 이를 복지예산의 11.67%나 되는 700억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비용을 특산물 지원에 쏟고 있다 보니 이를 이용하여 특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의 농산물을 구매해 그것을 지역 사업체에서 공정을 하고 외부에 파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농민이나 개인 사업자들에게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해주고 안정적인 수입은 결국 사업의 확대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기본적인 내수경제의 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활성화하고, 외부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를 모회사인 지자체가 맡음으로써 광고를 하나의 사업으로 연대·추진하여 개인 사업자들이 엄두도 내지 못했던 엄청난 광고 비용의 부담은 더욱 줄이고 낙수효과로 인한 구매를 증가시켜 사업체들이 개별로 운영될 때보다 엄청난 시너지를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지자체는 지역을 홍보하여 외부에서의 유입을 늘리고, 확장되고 늘어난 사업체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노령화 문제까지 해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현 강화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령화, 일자리 부족 등을 해결하고 더 새롭고 발전된 강화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학교 활동이나 교육청의 여러 외부 활동을 통해서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쌓고, 보완해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생이 꿈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점점 구체화 되어, 자신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명확해진다는 것이야말로 학생이 자신의 결대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이러한 학생의 성장을 학생의 성공으로 정의하고,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을 학생으로서 반갑게 생각하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경제라는 영역에서 제 결을 찾았듯, 우리 학생들이 저마다 자신의 결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우리 인천교육청이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인천교육이 학생의 성공시대를 열어주길, 학생으로서 기대와 관심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교육정책연구소 연도별 연구과제 목록 2015~2022

2015년 연구과제명
● 2015 행복배움학교 1차 년도 성과 분석
● 2015 인천 교원 승진제도 개선 방안 연구
● 2015 인천 교육정책 인식 조사
● 2015 행복배움학교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 2015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모학교에 관한 운영 실태 분석 및 제언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모 사업 실태 분석(현장교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학교혁신 정책 연구 사례집
● 국제이해 및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 학교혁신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향
● 초등 평가 방법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창의·공감교육을 통한 미래형 학력
● 지역사회 연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역량 강화 방안 연구
2016 연구과제명
● 2016 행복배움학교 성과분석 연구 : 2년차 행복배움학교 구성원의 변화를 중심으로
● 2016 인천 교육정책 인식 조사
● 공모 사업 평가 모델 개발 연구
● 창의·공감교육을 위한 인천시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
● 교원연수 실태분석 연구
●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 추진 방안 연구
● 인천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 관리 실태 조사
● 방과후학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 인천교육 중·단기 발전방향 연구(1차년도)
● 공감100℃ 민주적 학교 운영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 평화의 길을 여는 윤리적 생활공동체 문화 만들기
● 행복한 배움을 꿈꾸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이야기
●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16 연구과제명
●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 인천 수업 정책의 방향성 고찰(초등)
●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문화 조성 방안(중등)
●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 인천 수업 정책의 방향성 고찰(초등)
●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문화 조성 방안(중등)
●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사례 모음집
● 학교업무 정상화 매뉴얼
● 인천형 교원연수모형 개발
●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교원임용시험(2차) 개선방안
● 인천형 학교혁신문화 측정도구 개발
● 인천 생태환경평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연구
● 학교와 지역 간 마을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 인천형 교원연수 모형 후속 연구
2017 연구과제명
● 행복배움학교 발전 방안 연구
● 2017 인천 교육정책 인식 조사
● 유아체험시설 설치 방안 연구
● 위기학생을 위한 통합지원체제 구축 방안
●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모형 개발
● 교무행정지원팀 실효성 확보를 통한 학교업무 정상화 방안
●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원 연수 실태 분석
● 교육과정 중심의 교원 인사정책 개선 방안
●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 요소 개발 연구
● 고등학교 핵심역량 기반 평가모델 연구 - 교과별 성취기준 연계를 중심으로
●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교무학사·행정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서식 표준화 연구
● 중학교 신입생 반배치 방안 연구
● 인천광역시 건강 체력증진을 위한 학교체육 정책 탐색 연구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 정책 평가 모형 연구
● 초등 예비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러닝 활용 방안
● 인천교육 중기 발전 방안
● 인천 원도심 지역 교육 실태 및 발전 방안
● 미래학교 환경 및 공간 구성 방안 연구
● 초·중·고 진로교육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 학생자치활동의 실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사례 분석을 통한 인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 지역(마을)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2018 연구과제명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실태파악 및 보호방안 개선
● 인천 학교혁신 실태조사 - 교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교직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사양성 개선방안
● 인천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인천 학교평가지표 개발 연구
● 교장공모제 내실화 방안 연구
● 고등학교 교과별 과정중심 수행평가-기록 개선 방안 연구
●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인식조사 및 방안
● 학업중단속려제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
●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학교 내 대안교실 개선 방안 연구
● 미래교육에 대한 교사역량 개발 방안 연구
● 지역 산업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대학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 발전 방안
● 인천시 국공립유치원 교육여건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교직원의 학교 적응 지원 방안 연구
●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
● 인천광역시 기초학력보장 정책 추진현황 진단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
● 인천 전문적 학습공동체 사례 연구를 통한 활성화 지원 방안
● 학부모 학교 민원 실태 분석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 지원방안 연구
● 학교 환경과 공간 구성 방안
● 인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생활종합실태 분석을 통한 학생 교육정책 방향 탐색
2019 연구과제명
● 인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생활종합실태 분석을 통한 학생 교육정책 방향 탐색
●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발전 방안
●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 개발 연구
● 인천 마을교육공동체 발전방안 연구
● 인천 중·고등학교 구성원 성인지감수성 실태조사
● 빅데이터 기반 인천교육정책 지원 방안
● 동아시아시민양성을 위한 인천형교육과정 개발
● 평화통일 교육의 실태와 방향성
● 필수 연수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
● 인천교육균형발전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및 개선방안
●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 연구
● 인천 학생의 생활종합실태분석 및 학생 교육정책 방향 탐색
● 인천 학교도서관서비스에 대한 경험 및 인식 분석
● 인천광역시 학생 자살 원인분석을 통한 예방대응방안 연구
● 현장적합성의 재개념화를 통한 초등교원 양성 및 연수과정 개선 방안 연구
● 인천 미래학교 공간 혁신

2020 연구과제명
● 동아시아시민교육 정책 평가도구 개발
●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동아시아시민 진로교육 운영 방안
● 인천광역시 학교폭력 원인 분석 및 교육적 대응 방안 탐색
● 인천 강화군 자원을 활용한 교원 에듀투어
● 빅데이터 활용 단위학교 정보제공 방안
● 인구절벽시대 미래 교육정책 방향
● 18세 선거권 도입에 따른 학생선거교육 방향 연구
● 인천광역시 다문화학생 밀집 학교의 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 인천 중·고등학교 수행평가 현황 분석 및 현장 지원 방안
●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지원대상 학생 맞춤형 지원 방안
● 학교업무정상화 사례 분석을 통한 교원의 직무 여건 지원 방안 연구
● 교육정책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분석과 AI 플랫폼 구성 방안
● 인천광역시 초등학생의 성장 발달 단계 연구
● 초·중·고 동아시아시민교육 교재 개발
2021 연구과제명
● 생태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인천 생태시민교육 발전 방안
● 미래형 행복배움학교 방향 탐색 연구
● 인천교육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
●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재구조화 방안
● 인천 학생의 사회참여 실태 조사
● 인천광역시 직업계고등학교 특성 분석 및 운영 방향 탐색
● 인천 공립형 대안학교 발전 방안
● 학습자 참여 기반 온오프 블렌디드 수업 방법 연구
● 온라인 학습환경에서의 학생평가 사례 연구
● 코로나19 이후 실습 및 비교과활동 지원 방안 연구
● 사용자 경험(UX)기반 교육정책 개발
● 코로나19 전후 학생들의 심리와 정서 변화 연구
● 인천교육 중기 발전 방안 연구
● 인천교육정책 연구과제 및 정책사업과제 발굴 방안

2022 연구과제명
● 인천지역 산업체의 고졸채용구조에 따른 특성화고 지원 방향 탐색
● 인천 초등학교 교원 간 세대갈등 분석 및 효과적 대응 방안 탐색
● 인천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의 내용 체계 및 실행 방안
● 인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 동아시아시민학교 운영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체제 강화 방안
● 교육구성원의 교육활동 보호 인식
● 인천 학생 학습역량 측정 도구 개발
● 인천 학생생활 종합 실태조사Ⅱ-1차년도 기초 분석
● 2023 인천미래교육 정책 및 연구 방향 탐색
●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 업무 시스템 및 조직문화 개선
● 초·중·고 전환기 진로연계 교육과정 지원 및 적용방안 연구
● 학교도서관 기능 복합화 방안 연구
● 과대, 과밀 학교 해소 및 지원 방안 연구
● 학생 성장 및 적응 체제 구축 지원 연구